



제1장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박시내·손희경·홍상혁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제이주는 인류의 역사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모국이나 거주국의 단일 국민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국제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서구 사회는 인종·국적·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사회로 발전해온 한편, 이민 2, 3세대의 사회 통합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표구축 노력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인력의 부족과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다문화 사회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국제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은 ‘배출-흡인(push-pull) 이론’으로 이 모델은 이주민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의 관계를 단순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양국이 서로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이주민을 배출 또는 흡입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분절노동시장론에서는 노동시장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분절된 형태임을 가정하여 선진국의 노동시장이 고숙련-고임금, 안정적인 근로조건의 1차 노동시장과 저숙련-저임금, 불안정한 근로조건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모델에서는 내국인의 인적 자본 수준이 향상되면서 1차

노동시장을 선호하게 되고, 2차 노동시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유입하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내국인이 노동집약적인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게 되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한편 한국에서의 이민정책의 또 다른 축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이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과는 달리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영구적인 이주의 성격을 띤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한국의 이민정책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결혼 이민자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왔다.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두 개의 축으로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통계가 분산적으로 작성·실시되었다. 이민자 관련 통계는 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에 애로점이 있어 행정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이민자 관련 통계는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가 있으며, 통계청의 「국제인구 이동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가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가 있으며,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실태파악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통계청의 「다문화인구 동태통계」가 있다. 이민자 관련 통계는 인구, 노동, 가족, 소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통계마다 용어의 정의가 통일되지 못하고, 조사마다 중복성이 있어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민자 체류실태 전반에 대한 신뢰성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외국인 관련 조사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외국인 고용조사」가 대표적이다. 가장 대규모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표본조사의 경우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커버리지가 낮아 자료 활용에 제약이 있다.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나, 귀화자나 이민 2세대의 노동시장 성과까지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¹⁾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 유치, 결혼이민자의 유입 등의 영향으로 체류외국인의 현황 파악, 사회통합 등 정책수립을 위한 이민자 통계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관련 통계생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자의 체류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계의 작성이

1)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로는 「국제인구 이동통계」와 「다문화인구 동태통계」가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국제인구 이동 현황과 다문화 인구의 혼인·이혼·출생·사망의 현황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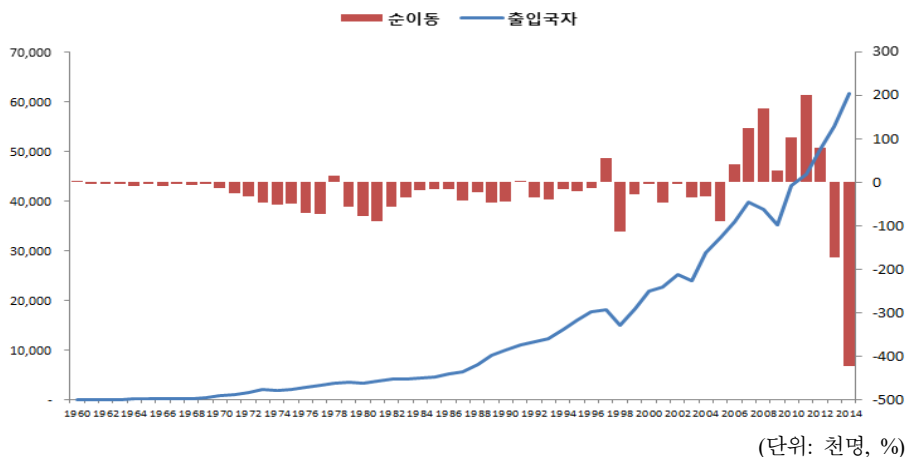


무엇보다 요구된다. 한편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출생국가 중심의 이민자 통계를 작성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민자 실태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이 미흡한 수준으로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정책개발 활용성, 국제기구(OECD, UN) 제공 가능성을 고려한 이민자 관련 조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개발된다면, 각 부처에서 비정기·분산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외국인 관련 통계를 통계청에서 체계적으로 실시·관리하여 통계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며,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 현황 및 추이

외국인의 유출입 현황과 체류외국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외국인 통계는 유량과 저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량은 유입과 유출되는 외국인 수로 제시되며,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이다. 저량은 한 시점의 거주국의 외국인 총수와 총인구 중 비율로 제시되며, 국적 기준의 외국인 인구와 출생국가 기준의 해외출생 인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²⁾ [그림 1-1]은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이다. 이 자료는 내외국인 모두 포함된 것으로 90일 이하의 단기 이주자까지 모두 포함된 자료이다. 출입국자는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1960년 33천명에 불과했던 것이 1970년 859천명, 1980년 3,311천명, 1990년 10,059천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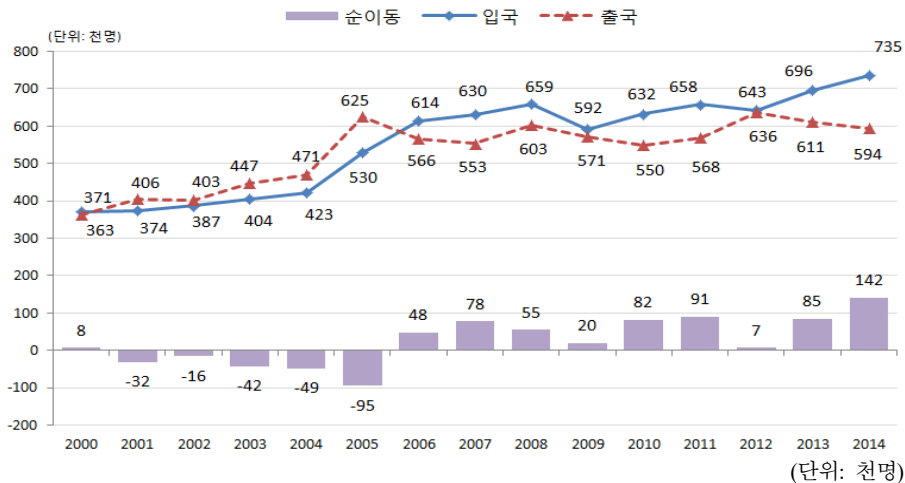
주: 내외국인 단기 이주자 모두 포함됨

[그림 1-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우리나라의 외국인 통계는 국적 기준으로만 작성되고 있다

2000년 21,802천명, 2010년 42,988천명, 2014년에는 61,652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에는 분리하여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출국자와 입국자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출입국자가 포함되어 단기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1-1]에서 순이동 패턴을 보면, 최근 2년 간은 순이동이 감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국제인구 이동통계」로 작성된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으로, 이 자료에는 90일 초과하는 이주자들만 포함되어 있다(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 제외).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자와 출국자의 패턴이 상이한데, 2006년 이후에는 입국자 규모가 출국자 규모를 상회한 것을 알 수 있다. 출국자의 추이는 2005년 625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 636천명으로 정점을 보인다. 입국자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592천명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 추이이고 2014년 735천명으로 정점을 보인다. 출입국자의 순이동(입국자 - 출국자)은 2006년 이후 증가(+)이며, 2014년 142천명으로 순이동량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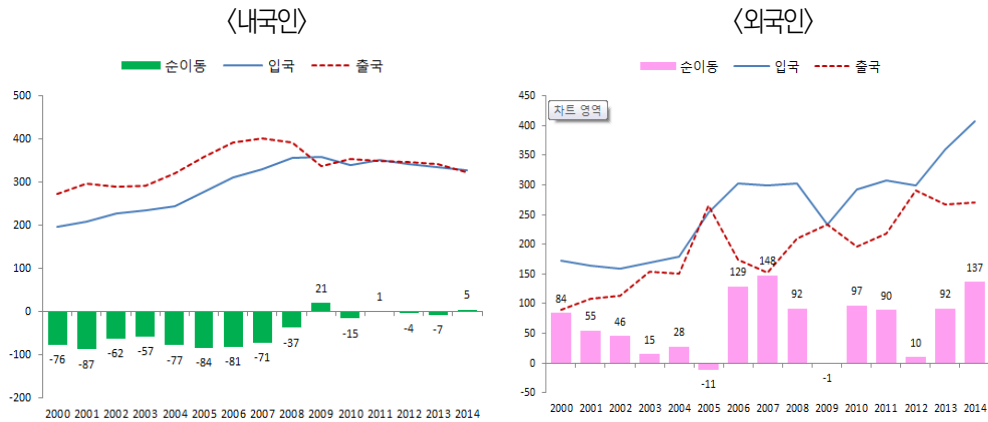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4년), 「국제인구 이동통계」

주: 체류기간 90일 초과 내국인+외국인 출입국자 집계

[그림 1-2]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국제인구 이동통계」)

[그림 1-3]은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리하여 도시한 것이다. 내국인은 2009년까지 출국 규모가 입국 규모를 상회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입국자와 출국자의 규모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외국인은 입국자의 규모가 출국자의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2014년 외국인의 순이동은 137천명으로 2007년 148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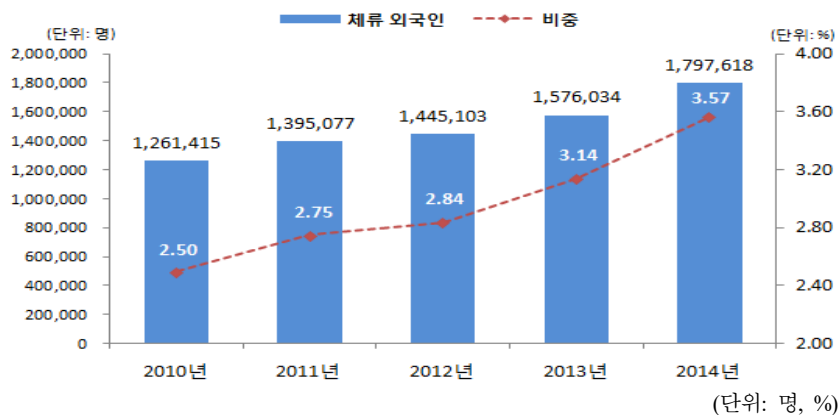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2014년), 「국제인구 이동통계」

[그림 1-3]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내국인과 외국인)

[그림 1-4]는 체류외국인 추이이다. 2014년 말 기준 국내의 체류외국인은 1,797,618명으로 2013년 대비 14.1%(221,584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9.3%의 증가율을 보인다. 전체 인구(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2010년 2.5%에서 2014년 3.57%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898,654명(50.0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6,663명(7.6%), 베트남 129,973명(7.2%), 태국 94314명(5.2%) 순으로 나타난다.



(단위: 명,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 전체 인구수로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함

[그림 1-4] 체류외국인 추이(2010년-2014년)

제2절 이민자 개념정의

1. 이민자 개념 정의, 기준

가. 이주통계 프레임

이민자 체류실태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조사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부분은 이민자(immigrant)에 관한 개념 정의이다. 국제이동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이주 목적을 띤 국제이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해방과 분단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의 재유입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외국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인구의 유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결혼이민자, 학생 신분의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주가 이뤄졌다.

이민자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민자에 관한 포괄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민자 조사는 조사대상을 잘 포착하기 힘들어 조사의 커버리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정보는 행정자료(주민등록, 거주처 정보 등)를 자료원으로 하여 많은 부분이 작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출입국 통계 등 이민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작성되고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들은 서로 조사목적이 상이하며, 저마다의 조사목적과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포괄범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 통계 작성을 위한 일관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은 외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민자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이주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민자의 유량(flow: inflow & outflow)과 저장(stock)을 통한 것이다. 이민자 유량(flow)은 기준 년도 1년 기간 중(1월 1일 ~ 12월 31일)에 들어오거나 나간 이민자를 말하며, 이민자 저장(stock)은 기준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수를 말한다. 한편 이민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UN, EU, OECD에서는 크게 국적(Citizenship)과 출생지(Country of birth), 체류기간(Period of arrival in the country)을 통해 정의한다. 이민자 정의를 국적을 기준으로 한 경우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 foreigner)로, 출생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로 개념화하게 된다. 외국인 인구에는 유입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소지자를 일컬으며,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세대도 이 개념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해외출생 인구는 출생지가 현재 거주지와 다른 국가인 경우로 OECD에서 이민자는 국외출생자(Person born abroad)로 정의하고 있다.³⁾

3) 해외출생 인구는 통상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에서 국적취득자를 더하고, 국내 체류기간 중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수는 빼서 산출할 수 있다(이종원 외, 2013).



〈표 1-1〉 국제이주 통계의 유량(flow)과 저장(stock)

개념	내용	제시방식	자료원
이민자 유량	이민자의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	유입/유출 이민자 수	국제인구 이동 통계(통계청)
이민자 저장	1.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 2.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총수, 총인구 중 비율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출처: OECD(2014),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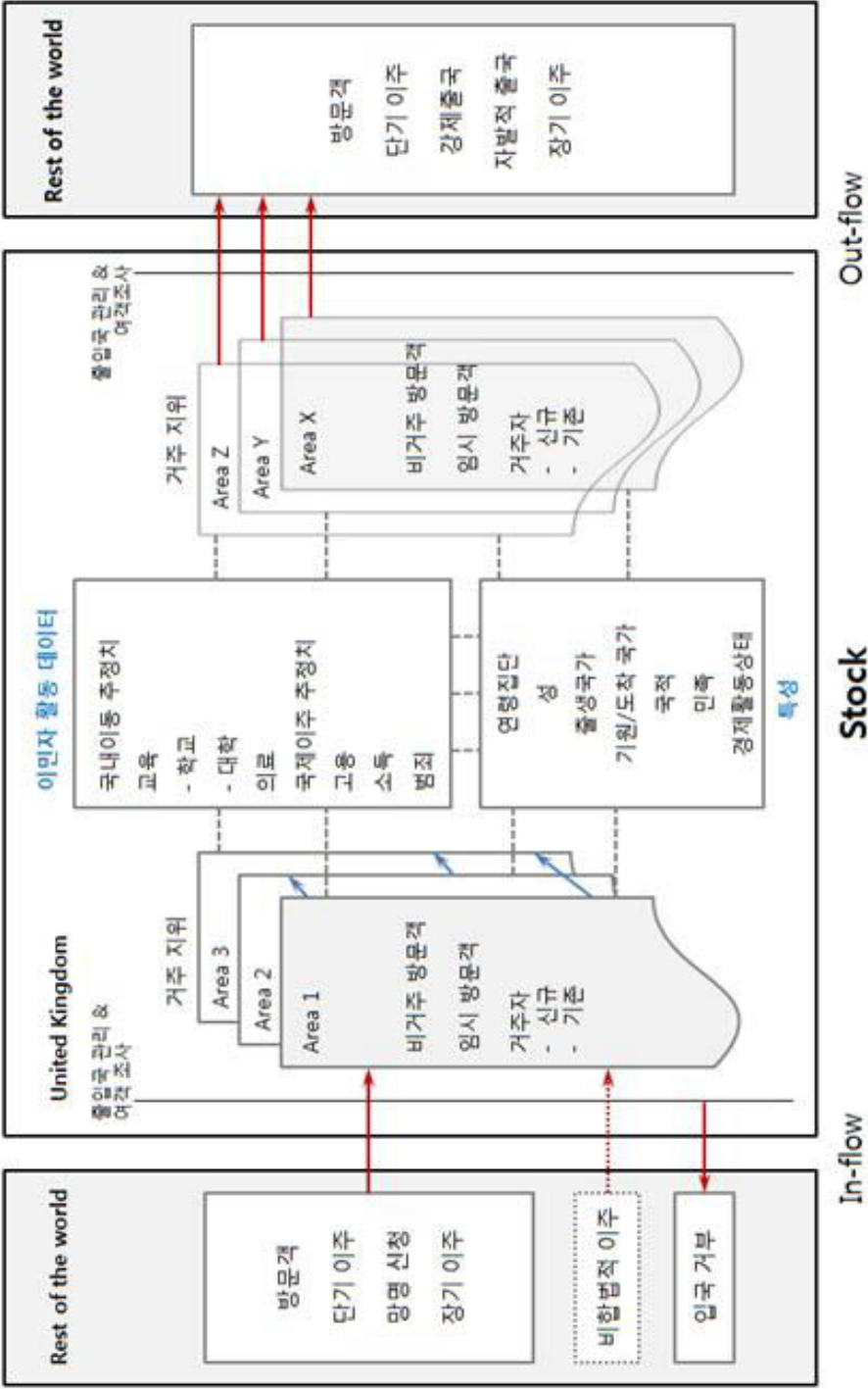
주: * 한국은 외국인 인구만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포괄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검토 이전에 해외의 이주통계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통계의 작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통계 프레임워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레임워크란 통계 작성 영역에 대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통계의 측정, 자료수집의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프레임워크의 구상 작업은 인구의 개념화, 자료수집, 통계 생산 관련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 및 제언으로 구성된다(박경숙 외, 2015년). 특히 인구통계 프레임에서 이주통계 프레임은 이민자 통계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통계 프레임이 현황 파악과 더불어 향후 필요 통계 개발에 관한 거시적인 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1-5]는 영국의 이주통계 프레임워크이다. “이주”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으로 이주의 구성요소를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주의 형태는 합법적인 이주로 방문객, 단기 이주자, 장기 이주자, 망명 신청자의 형태가 있으며, 비합법적인 이주의 형태도 있다. 한편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사례에서 이주자들의 활동은 주제별로 행정자료를 통해 자료가 수집된다. 고용 관련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면 사회보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국제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영국 이민자의 활동 데이터는 국내이동, 교육, 의료, 국제이동, 고용, 소득, 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집되고, 관리된다. 이민자 활동 데이터에서 이민자의 특성은 연령, 성, 출생국가, 기원/도착 국가, 국적, 민족, 경제활동상태로 분류되고 특성화된다. 한편 이민자들의 국내 이동 또한 관심사이다. 이민자의 거주 지위는 비거주 방문객, 임시 방문객, 거주자로 분류되며, 이들은 영국 내에서 지역 간 이동을 하며, 이주자의 지리적 분포 또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주민의 유출은 유입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조사와 국제 여객 조사에 의해 수집된다.

영국의 이주통계 프레임워크는 국제이주통계의 유량과 저량을 포괄하여 전체적인 틀을 제시한다. 즉 이주자의 국내 유입과 유출, 국내 거주 이주자의 활동 데이터와 특성을 보여준다. 영국에서 이주자의 출입국 현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며, 이주자의 활동 데이터는 주제별로 다양한 자료원에 의해 알 수 있다.



출처: UK Statistics Authority(2009), Migration Statistics: The Way Ahead? London: UK Statistics Authority(박경숙 외, 2005 재인용)

[그림 1-5] 영국의 이주통계 프레임워크



영국의 이주통계는 다양한 원천의 자료에 의해 작성된다. 구체적인 자료 원천은 센서스 자료, 조사자료, 연계자료와 행정자료로 구성된다. 영국의 센서스 자료는 10년에 한번 실시되며, 이주자의 특성 파악을 위한 포괄범위가 가장 넓고, 대규모 조사로 소지역 까지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조사자료는 세부적인 영역을 선정하여 조사하기에는 유리하나, 작은 표본크기로 인해 세분화된 이민자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영국의 국제이주통계 중 조사자료는 국제여객조사와 노동력조사가 활용된다. 국제이주통계 자료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자료로 10개의 행정자료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용되는 행정자료의 영역은 출입국 자료, 근로 허가제, 연금, 교육 통계 등 다양하다. 각 자료원이 측정하고 있는 이주자의 특성은 이민자 저량의 경우 센서스와 LFS로 측정되며, 대부분의 자료원에서는 이민자 유량 특성을 파악한다. 연령과 성에 대한 기본 정보는 거의 모든 자료원에서 담고 있으며, 자료원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2〉 영국의 국제이주통계 자료원

	주기	대상	Stock	Flow	연령	성	민족	자료
Census								
UK Census	10년	모든 이민자	■	■	■	■	■	ONS
pupil Census	년 2회	학생	■		■	■	■	DCSF
Survey								
International Passenger Survey	분기	모든 이민자		■	■	■		ONS
Labour Force Survey	분기	모든 이민자	■	■	■	■	■	ESDS
Composite								
TIM	1년	장기 이주자		■	■	■		ONS
Administrative								
Immigration Control	1년	non-EEA 이주자		■				HO
Work Permits	1년	non-EEA 이주자		■	■	■		HO
Points Based System	1년	non-EEA 이주자		■				HO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1년	계절 근로자		■				HO
National Insurance Number Registration	분기	이주 노동자		■	■	■		DWP
Work & Pension Longitudinal Study		UK 노동력		■	■	■	■	DWP
Work Registration Scheme	분기	자영업자제외		■	■	■		HO
GP Registrations	1년	모든 이민자		■	■	■		ONS/NHS
Higher Education Statistics	1년	학생		■	■	■		HESA
Electoral Register	1년	투표자		■	■	■		local

출처: UK Statistics Authority(2009), Migration Statistics: The Way Ahead? London: UK Statistics Authority

<표 1-3>은 한국의 이민자 관련 활동 데이터이다. 표에 제시된 통계들은 이민자의 현황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포착하고 있다. 영국의 이주통계 프레임워크와 유사하게 한국의 이민자의 유량은 입국 시의 심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체류자격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민자 관련 통계는 인구, 가족, 노동, 경제, 교육, 건강, 관광, 범죄의 8개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구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국제인구 이동통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가 발간하는 것으로 체류외국인통계와 출입국자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국제인구 이동통계」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기초로 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이다. 「국제인구 이동통계」는 모든 출입국 건수를 집계하는 법무부의 출입국자 통계와 달리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상주지를 옮긴 이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는 지자체별로 거주 외국인 기본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정착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이 조사의 조사대상은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귀화자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전수조사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수 및 표본조사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3개월 이상 거주)을 조사대상으로 한다.⁴⁾ 조사의 원칙은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모두 포괄하며, 조사항목 역시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잘 조사되지 않아 행정자료 상의 외국인 수와 차이가 있다.⁵⁾

가족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는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다문화인구 동태통계」가 있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귀화자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다문화가족의 실태, 사회통합도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의 「다문화인구 동태통계」는 다문화인구의 지역별, 다문화 유형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혼인이혼출생사망 신고서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인구동향조사에서는 내국인뿐만 아닌 외국인과의 이혼, 결혼 현황에 대해서 작성·공표하고 있다.

노동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는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와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가 있다. 「외국인 고용조사」는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된 조사이다. 기존에 경제활동인구 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에 일부 외국인 가구가 조사되기도 했으나, 집단시설 가구가

4) 외국인 중 해외취업·취학 중인 자, 외국외교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 주둔 외국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5) 2010년 조사결과 외국인은 약 59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97만 명(출입국 통계)의 약 60%만 조사되었다.



〈표 1-3〉 한국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

분야	조사명	주요 내용	조사대상	주기	기관	유형
인구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연보	출입국자·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 외국인	월/분기/1년	법무부	보고
	국제인구 이동통계	국제인구이동 현황	90일 초과 외국인	1년	통계청	보고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외국인 주민 현황	90일 초과 외국인, 귀화자와 그 자녀	1년	행정안전부	조사
가족	인구주택총조사	내·외국인 인구주택 현황	모든 외국인	5년	통계청	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파악	결혼이민자·귀화자 그의 배우자	3년	여성가족부	조사
	다문화인구 동태통계	다문화 인구의 혼인·이혼·출생·사망	결혼이민자·귀화자 그의 배우자	1년	통계청	보고
노동	외국인 고용조사	경제활동상태	90일 초과 15세 이상 외국인	1년	통계청	조사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체류실태 및 취업활동	외국인 유형별	2년	법무부	조사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부족 인력규모 조사	사업체	반기	고용노동부	조사
경제	국제통계연보	외국인 소득세 신고 현황	외국인	1년	국세청	보고
	국민연금통계	국민연금에 가입된 외국인 현황	국민연금 가입한 외국인	1년	국민연금공단	보고
	산재보험통계	외국인 근로자 급여지급 현황	외국인 근로자	1년	고용노동부	보고
교육	교육통계연보	유학생 현황	재학 중인 유학생	1년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건강	건강보험통계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적용인구 현황	외국인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의료기관	1년	보건복지부	보고
관광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외래 관광객의 여행 및 소비 실태	1일~1년 만15세 이상 외래 관광객	1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범죄	직종별 외국인 범죄통계 현황	외국인 범죄 현황	외국인	1년	경찰청	보고

제외되어 외국인 가구가 과소 표집되는 등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국내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만15세 이상 외국인(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국적,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일반적인 사항과 경제활동 특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조사통계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방문 취업제 외국국적동포, 영주권·귀화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는 조사마다 대상을 달리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및 적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항목은 입국, 취업, 근로조건과 직무만족, 일상생활 등 체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본 조사는 매회 주제 및 조사대상을 달리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부족 인력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직능수준별 구인 및 채용, 미충원 인원과 부족인원 등을 조사한다.

경제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가 신고 인원 및 신고 세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지표이다. 이 자료는 조세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국민연금통계」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1995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산재보험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 외국인의 년도 및 국가별 급여지급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교육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가 있다. 「교육통계연보」는 국외 유학 관련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기본정책 수립,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다. 유학생 현황 자료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이상의 유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건강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로는 「건강보험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는 외국인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간 유치한 외국인 환자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관광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방문횟수, 목적, 방문지, 동반자 등 여행실태에 관해 조사한다.



범죄 분야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로는 「직종별 외국인 범죄통계 현황」이 있다. 이 통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직종별 통계로 외국인 유입증가에 따른 범죄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민자 통계는 영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출처 자료원에서 의해 작성되며, 특히 행정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의 이민자 관련 통계 역시 행정자료(보고통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이민자에 대한 현장조사가 쉽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에서 이민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의 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이 중요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의 체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수의 조사가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일단 이민자 모집단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모집단의 부정확한 정보는 표본의 대표성,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 집단이 많을수록 표본의 대표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특성상 다양한 체류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구나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기 힘들다. 한편 다양한 영역에서 수집되는 이민자 통계들 사이에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가령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이민자에 대한 정의와 포괄범위, 심지어는 같은 용어를 사용함에도 조사대상에 대한 포괄범위가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조사마다 유사한 조사항목이 상호 중첩되어,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보고자료(행정자료) 역시 유사한 항목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결과값 역시 상이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민자 통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은 해외 국가에도 공통된 현상이다. 이주 통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영국 통계청은 국내이주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을 위한 많은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은 2004년 EU의 확대와 함께 전례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제이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나. 이민자 포괄범위

가. 에서는 영국의 이주통계 프레임을 살펴보고, 영역별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계와 이민자 통계 작성의 애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 에서는 국제기구(UN, OECD, EU)의 이민자 정의에 관해 살펴보고, 이민자 포괄범위의 작성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자(immigrant)에 관한 개념 정의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민자 인구가 10% 내외 수준으로, 이들의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의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 빈곤은 이들의 사회통합을 측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이민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상이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통계 간에 이민자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다.

UN에서는 센서스 조사의 주요 개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국제이주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① 출생국가(Country of birth), ② 국적(Citizenship), ③ 도착년도(Year or period of arrival in the country)를 권고한다(UN, 2008). UN과 OECD 기준을 참조하면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는 특정 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이전 거주국과 다른 국가에 도착한 외국인이나 돌아온 내국인으로 정의하며, 국제이주자는 사실상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계획으로 입국한 비상주인으로 정의한다(박경숙 외, 2015; UN, 2014;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이종원·노용진, 2013).

국제비교를 위해 OECD나 EU의 이주민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민자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와 출생국가를 기준으로 한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이다. 국적과 출생지는 이민자 인구를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된다(OECD, 2012).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란 거주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유지한 이들의 자녀세대 역시 외국인 인구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 인구란 출생지 국적을 유지하는 이민자들과 거주 국가 태생의 2세대 및 3세대를 포함한 개념으로 귀화한 모든 이민자들을 배제한다. 한편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는 출생지(또는 출생 당시 어머니의 상주지)가 현재 거주 국가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해외출생 인구는 국적과는 무관하게 국외출생 이민자 인구에 중점을 두며, 이민자 중 국적을 거주국으로 변경한 귀화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와 외국 국적자가 거주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요약하면 해외출생 인구는 국경을 넘어 이주한 이민 1세대(귀화자 포함)라고 할 수 있다.⁶⁾

OECD는 이민자 인구를 정의함에 있어서 출생 시 외국국적을 갖고,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국한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국외 거주자의 귀국 자녀들은 배제하는 것을 제안한다(OECD, 2012). 한편 OECD는 이민자의 자녀세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이민자의 자녀세대는 국외에서 출생한 부모의 현지출생 자녀로 정의되며, 부모 중 한명 이상 현지출생한 부모의 자녀세대를 그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민자의 포괄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구개념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구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상주(常住)인구와 현주(現住)인구 개념이

6) 한국에서 작성되는 외국인 저량은 출생국가 중심의 해외출생 인구가 아닌 국적 중심의 외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들은 해외출생 인구를 기준으로 이민자 통계를 발표한다. OECD에서 발간하는 국제이주통계에서는 회원국의 이민자 유량은 외국인 인구 기준이며, 저량은 외국인 인구와 해외출생 인구를 모두 발표한다(정기선 외, 2015).



있다. 상주인구란 법적인 등록인구가 아닌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는 인구를 말하며, 센서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념이다. 현주인구는 조사시점에서 파악되는 인구로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의 경우 상주인구와 현주인구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서비스 인구는 여기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주간인구와 일시적인 방문객까지 포함한 인구 개념이다. 한편 등록(燈錄)인구는 주민등록지에 기반한 인구로 등록지와 상주지가 다를 경우 상호 간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민자 포괄범위에 상주인구 개념을 도입한다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만 집계될 것이고, 서비스 인구 개념을 활용한다면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통계마다 이민자 포괄범위와 접근법에 차이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자료에서는 상주인구 개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실태조사」는 등록외국인 이외 90일 미만의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서비스 인구 개념이며,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15세 이상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상주인구 개념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세대, 유학생 등 이민인구가 점차 다양화되면서 잠시 이주했다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의 외국인의 포괄범위는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체류실태 전반을 포착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통합까지 측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사개발을 위한 이민자 포괄범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표 1-4〉 독일 통계청의 이민배경인구

이민배경 & 경험	이민배경 없는 인구			
	이민배경 인구	외국인	본인 이주 경험 있음(이민1세대)	
			본인 이주 경험 없음(이민2세대)	
		이민배경 독일인 (귀화자)	본인 이주 경험 있음(이민1세대)	
			본인 이주 경험 없음(이민2세대)	양쪽 부모 이주 한쪽 부모 이주

출처: 박경숙 외(2015), 인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통계개발원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이와 관련하여 독일 통계청은 이민배경인구(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OECD와 EU 역시 이 개념을 차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독일 통계청이 정의한 이민배경인구는 ① 194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독일연방 지역으로 이동한 자(출생국가 기준), ②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국적 기준), ③ 독일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어느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외국인의 자녀세대)으로 정의되며, 이민 1세대 및 2세대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OECD는 독일 통계청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민배경인구를 해외에서 출생하여 이주한 이민 1세대와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해외출생 이민 1세대인 국내출생자, 즉 이민 2세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정기선 외, 2015; OECD, 2015). 한편 OECD의 이주민 통합지표 보고서에서는 이민자 통합을 위한 이민자 집단 구분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본인의 국제이주 경험(국적 취득과는 무관한 해외출생 여부), 둘째, 이주경험이 있는 경우 이주의 시점(15세 이전과 이후로 구분), 셋째, 부모의 해외출생 여부이다(<표 1-5> 참조). 이민자들을 위 세 기준으로 분류하면, 네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① 15세 이전에 이주한 해외출생 이민자, ② 15세 이후에 이주한 해외출생 이민자, ③ 부모 모두 해외출생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 ④ 부모 중 한쪽이 해외출생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이다.⁷⁾

<표 1-5> 독일 통계청의 이민배경인구에 대한 정교화(OECD)

		이민배경 없는 인구					
이민배경 & 경험	이민배경 인구	외국인	본인 이주 여부	이주 경험 있음(이민1세대)	이주 시점	15세 이전	
						15세 이후	
		이주 경험 없음(이민2세대)					
		이민배경 독일인 (귀화자)	본인 이주 여부	이주 경험 있음(이민1세대)	이주 시점	15세 이전	
					15세 이후		
	이주 경험 없음(이민2세대)			부모 출생 여부	양쪽 부모 이주		
				한쪽 부모 이주			

출처: OECD 보고서(2015년) 내용 표로 재구성

독일 통계청의 이민배경인구 분류를 참고하면,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국적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해외출생자)과 그 자녀세대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하위범주로 외국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와 거주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로 구분할 수 있다(박경숙 외, 2015).

<표 1-6>은 앞서 언급한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국적 취득자의 하위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외국인의 하위범주로는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⁸⁾,

7) ③은 이민자의 자녀 또는 2세대(Native-born children of immigrant)라고 부르며, ④는 이민배경 자녀 또는 2세대(Native-born children with mixed background)라고 부른다.

8)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는 90일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UN은 1년 이상은 장기이주, 91일~1년 이하는 단기이주, 90일 이하는 일시이동으로 분류한다.



〈표 1-6〉 이동 저량(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범주화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	범주			출처
	외국인	체류외국인	체류기간 90일 이상 외국인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단기체류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외국인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장기체류자	체류기간 90일 이상 외국인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등록외국인	장기체류자 중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인구	주민등록인구통계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다문화실태조사
			체류자격이 거주(F-2) 중 ‘국민의 배우자(F-2-1)’, 영주(F-5) 중 ‘국민의 배우자(F-5-2), 결혼이민(F-6-1~3)인 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직계 비속	외국인 고용조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외국인주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자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 연수생(D4-7)인 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 기술연수(D-3), 교수 등 취업 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한국 국적 취득자	귀화자(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 및 ‘기타(일반귀화, 입양)’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국적회복자	대한민국의 국민인이었던 외국인 중 국적 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법
		혼인귀화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일반귀화자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입양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통계청

출처: 인구통계 프레임워크 작성(박경숙 외, 2015년) p.108의 표를 재구성함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등록외국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의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국적 취득자의 하위범주는 귀화자(혼인귀화, 일반귀화, 입양), 국적회복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으로 국적회복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영국의 이주통계 프레임과 한국의 이민자 활동 데이터, 이민자 포괄범위에 관한 국제적 기준(UN, EU, OECD) 및 독일 통계청의 이민배경인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민자에 대한 정의는 크게 국적과 출생지, 거주 기간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거주 국가의 국적 유무로는 외국인(foreigner)과 내국인(native), 출생국가에 의해서는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와 본국출생 인구(native-born population)로 구분된다. 거주 기간은 국내에서는 90일을 기준으로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로 구분하며, UN에서는 장기이주(1년 이상), 단기이주(91일~1년), 일시이동(90일 이하)으로 분류한다.

[그림 1-6]은 국적과 출생국가를 기준으로 이민자 포괄범위 프레임을 도식한 것이다. 이 프레임의 대상범위는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내·외국인이며, 영역의 구분에 국적과 출생국가만 고려되었다. 제1 영역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로 내국인과 귀화자의 국내출생 자녀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내국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는 이민자 통계의 비교집단이 된다. 한편 국내출생한 귀화자의 자녀세대(양쪽 부모 귀화자, 한쪽 부모 귀화자) 역시 한국국적을 갖게 되므로 제1 영역에 속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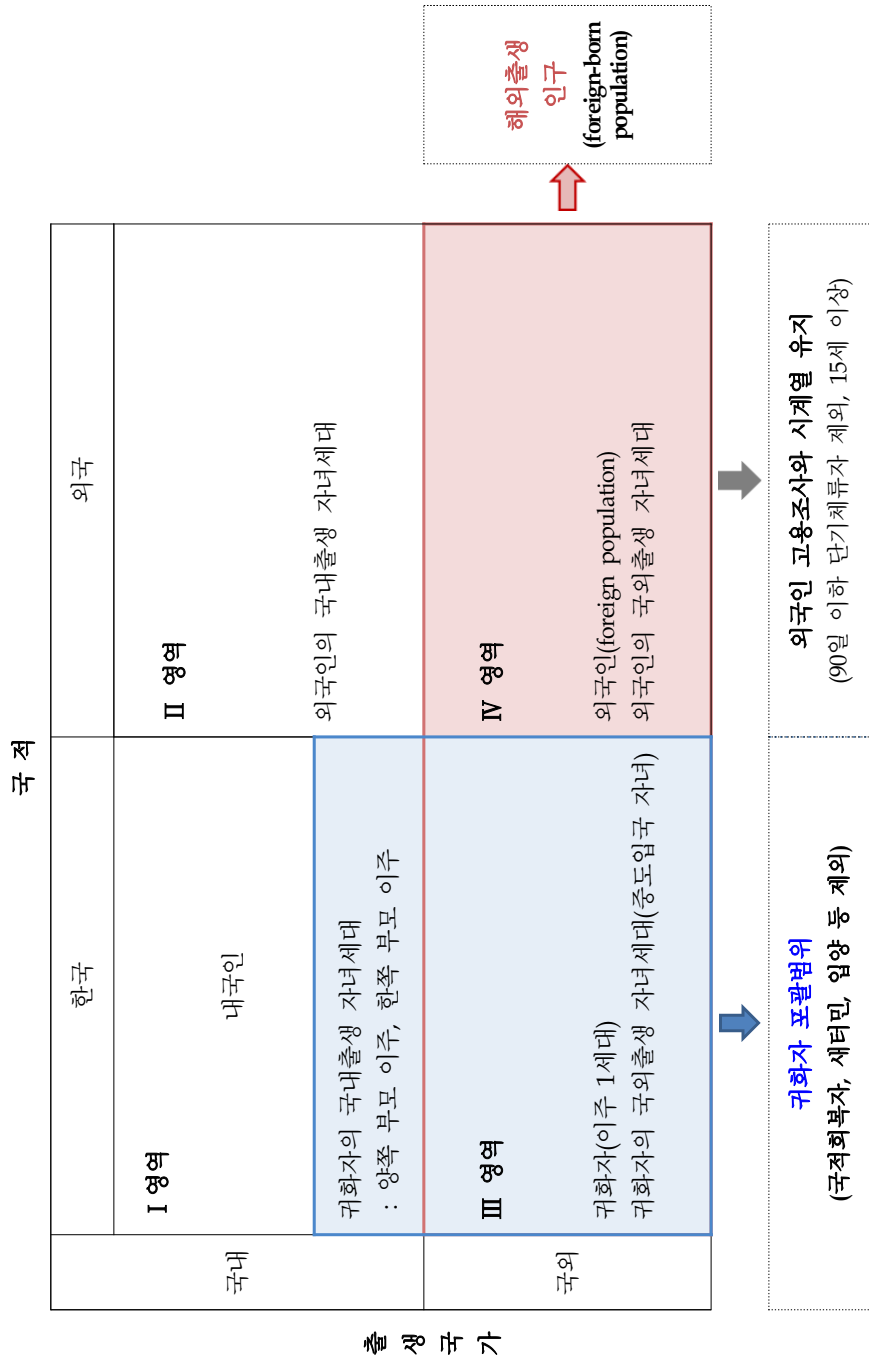
제2 영역은 외국국적을 갖으나, 국내에서 출생한 자이다. 이 영역에는 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세대가 속한다.

제3 영역은 국외에서 출생하였으나,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귀화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귀화자의 국외출생 자녀세대(중도입국 자녀)도 제3 영역에 속한다.

제4 영역은 국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나,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 외국인과 외국인의 국외출생 자녀가 이 영역에 속한다.

이 프레임에서 제3, 제4 영역은 해외출생 인구이며, 제2와 제4 영역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고용조사는 제4 영역의 90일 초과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귀화자까지 확대하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실시된다면, 작성 대상으로 기존의 귀화자에 대한 추가적인 포괄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세대와 귀화자의 국내출생 자녀세대(양쪽 부모 이주, 한쪽 부모 이주 모두 포함) 및 귀화자의 국외출생 자녀를 귀화자 포괄범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귀화자의 국외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는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할 것이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부각되는 추세로 조사대상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한편 귀화자 중 귀환이동으로 국적을 회복한 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입양으로 인한 귀화는 귀화자의 포괄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귀환이동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작성대상: 국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 작성기준: 국적과 출생국가



주: * 90일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

[그림 1-6] 이민자 포괄범위 프레임

2. 현실적 적용방안

앞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이민자 포괄범위 설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2.에서는 이민자 포괄범위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모집단 자료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의 귀화자 모집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이다. 이 조사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이다.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의 조사대상은 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 초과 체류자(한국국적을 갖지 않는 자), ②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한국국적 취득자), ③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통계 작성방법은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자에 대한 법무부의 현황자료를 기초로 주민·가족 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군구 및 시도에서 조정 및 검증 작업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자료집계 후 공표하게 된다.

<표 1-7>은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이다. 국적미취득자의 하위 분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기타로 국적미취득자에서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이 기술연수(D-3), 교수 등 취업분야(E1~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이며,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이 거주(F-2) 중 ‘국민의 배우자(F-2-1)’, 영주(F-5) 중 ‘국민의 배우자(F-5-2)’, 결혼이민(F-6-1~3)인 자를 말한다. 유학생은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이다. 외국국적동포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이며, 외국인 중 기타는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된다.

〈표 1-7〉 2015년도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미취득자(1,376,162명, 79.0%)					국적취득자(158,064명, 9.1%)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기타 (기업투자, 취재 등)	혼인귀화	기타 (일반귀화, 입양 등)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608,116명	147,382명	84,329명	286,414명	249,921명	92,316명	65,748명	207,693명
(34.9%)	(8.5%)	(4.8%)	(16.4%)	(14.3%)	(5.3%)	(3.8%)	(11.9%)

자료: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보도자료 요약(2015.7.6)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국적취득자는 혼인귀화와 기타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분류되며, 귀환이동으로 인한 한국인의 국적회복자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국적취득자에서 제외된다. 혼인귀화자는 외국인 중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이며, 기타사유는 일반귀화, 입양 등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는 외국인의 자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자녀로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의 조사대상은 국적미취득자 및 국적취득자와 자녀세대까지 포괄범위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조사를 귀화자의 모집단으로 한다면 국적취득자의 세부 분류에서 혼인귀화자와 일반귀화자는 [그림 1-6]의 III 영역에 속한다. 즉 출생국가는 국외이나, 이주 경험이 있으며, 조사시점의 국적은 한국국적이다. 한편 귀화자의 자녀세대 역시 귀화자의 포괄범위에 속한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부모 양쪽이 이주한 경우와 한쪽 부모만 이주한 경우이다.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자녀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1-6]의 귀화자 틀에서는 귀화자의 자녀만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중 본인과 배우자 혹은 본인이 귀화한 경우 조사대상의 포괄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적회복자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입양으로 인한 귀화자는 외국인 현황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표 1-8>은 「인구주택총조사」와 등록자료 간 외국인 수치를 비교한 것으로 등록자료에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가 활용되었다. 2010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외국인 총수는 약 59만 명으로 등록자료(약 94만 명)의 약 63% 수준이다. 국적별 외국인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은 인총이 약 21만 명, 등록 약 34만 명이며, 중국은 인총 약 93만 명, 등록 약 157만 명, 베트남은 인총 약 59만 명, 등록 약 95만 명 순이다. 한편 외국인 중 미국 국적자는 두 자료 간 차이가 크지 않아(인총 42만 명, 등록 48만 명) 국적에 따른 외국인의 포괄범위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인구주택총조사와 등록자료 간 외국인 수치 비교

(단위: 명, %)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기타	계
인총	206,049 (35.0)	93,272 (15.8)	59,339 (10.1)	41,766 (7.1)	24,782 (4.2)	164,324 (27.9)	589,532 (100.0)
등록	342,967 (36.3)	157,220 (16.7)	94,628 (10.0)	47,565 (5.0)	41,431 (4.4)	260,310 (27.6)	944,121 (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개인 표본자료(2010년), 등록자료(2010년)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해외사례

1. EU

유럽연합(EU)은 이민 수용국가로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이민자 통합지표를 구축하였다. 이민자 통합 방법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핵심 정책 과제이며, EU의 최우선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의 작성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4년 헤이그 프로그램 채택 후, 통합정책 평가의 중요성 강조되었고, 2004년 11월 EU 의회는 통합을 위한 공통기본원칙(CBP)을 채택하게 된다. 2007년 EU 의회는 통합 정책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공통지표를 개발하도록 장려하였다. 이에 EU 의회는 통합정책 평가를 유럽국가 수준에서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고, 지표 관련 방법론과 결과에 대한 정기적 교류를 독려하였다. 2009년 EU 회원국들은 내각회의에서 이민자 통합 정책 평가 및 지표의 공식적 확인에 대한 컨퍼런스를 조직하였으며, 통합정책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지표 개발을 요청하였다. 2009년 12월에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핵심지표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민자 통합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EU 장관들은 2010년 Zaragoza에서 열린 유럽연합 장관급 회의에서 EU 이민자 통합지표를 발표하였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목적은 이민자 현황 모니터링 및 통합정책 결과를 지원하는 것이며, 통합지표들은 ① 고용, ② 교육, ③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그리고 ④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EU 이민자 통합지표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통합 관련 지표들과 부가적인 영역(과잉자격자, 자가 고용, 언어 능력, 차별 인지, 공공기관 신뢰도, 선거권을 가진 인구 중 투표자 수, 소속감)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한편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자료원은 EU 노동력조사(EU-LFS), EU 소득 및 생활 환경 조사(EU-SILC),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등인데,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국의 공통 이민자 통합지표를 작성하였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다출처 자료원 활용에 의한 일관성의 확보이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정의한 용어는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EU의 이민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된다. 하나는 출생지에 따른 구분으로 국외출생자(Foreign-born)는 출생지(또는 출생 시 어머니의 상시 거주지)가 현재 상시 거주하고 있는 국가 외 지역인 자로 정의된다. 한편 국적에 따른 구분으로 외국인/비국적자(Foreigners/non-nationals)는 현 거주지 국가의 시민(국민)이 아닌 자로 무국적자 및 국적 파악이 불가능한 자를 포함한다. 주요 용어 중 시민권(국적) 취득 외국인의 비중은 매년 초 해당 국가에



〈표 1-9〉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주요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국외출생 (Foreign-born)	- 출생지(또는 출생 시 어머니의 상시 거주지)가 현재 상시 거주하고 있는 국가 외 지역의 사람
외국인/비국적자 (Foreigners/non-nationals)	- 현 거주지 국가의 시민(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무국적자 및 국적 파악 불가 외국인 포함
EU 시민 (Non-national EU citizens)	- EU-27 회원국 시민권(국적)자, EU-27 회원국 내 상시거주자
비 EU/ 제3국 시민 (Non-EU nationals)	- EU-27 회원국 내 상시 거주자지만, EU-27 회원국 시민권(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시민권 (Citizenship)	-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적 계약임 -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에 의한 시민권(국적) 취득, 개인선택, 혼인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시민권 취득 포함
시민권(국적) 취득 외국인의 비중 (The share of foreigner that have acquired citizenship)	- 시민권(국적)취득 외국인 비중은 매년 초 그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총수 대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거주자의 수의 비율 - 귀화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모든 종류의 취득이 포함되나 이 지표를 “귀화율”로 간주함 - 외국인의 연령, 성별 세부 그룹별 지표화 가능함
상시거주지 (Usual residence)	-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법적·행정적 거주지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	- 제 3국의 국적자가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회원국 정부당국이 발급한 증서
장기체류 신분 (Long-term residence)	- 발급된 허가증, 5년 이상의 합법적 체류 기간
과잉자격률 (Overqualification rate)	- 고등교육(ISCED 5 또는 6) 이수 이상 근로자 중 중등기술(ISCO 직업단계 4~9) 수준의 직업을 보유한 인구의 비중
조기중퇴자 (Early school leavers)	- 최종교육이 ISCED 0,1,2 또는 3c short에 해당하는 18세에서 24세 청년층으로 조사시점 전 4주간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았다고 선언한 사람들
등가소득 (Equivalised income)	- 가계 총소득을 가계구성과 가계규모를 고려한 “등가크기”로 나눈 것으로 정의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율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 3가지(사회적 이전 후 위험수준의 빈곤, 심각한 물질적 박탈, 매우 낮은 수준의 노동 강도)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적 이전 후 빈곤위험률 (Risk of poverty after social transfer)	- 위험수준의 빈곤 한계점(국민 등가 가처분 소득의 60%) 이하의 동등 가처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비

용어	정의
자가고용 (Self-employed)	- 자기 사업을 운영하거나, 전문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수익창출 목적의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1인 사업체이거나 종사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가계의 가처분 소득 (Household disposable income)	- EU-SILC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 소득 정의는 다음을 포함함 - ① 근로소득(피용자 보수 및자가고용 소득), ② 자산소득(이자, 배당금, 비법인기업의 자본투자 이득), ③ 자산임대 소득 또는 토지임대 소득, ④ 개인연금, ⑤ 사회보조 소득(실업수당, 고령자 수당, 최저생계비, ⑥ 질병 및 장애수당, ⑦ 교육관련 지원비, ⑧ 가족/자녀 관련 수당 등, ⑦ 정기적인 가정 내 수취 현금이전
구매력 표준 (Purchasing power standards: PPS)	- 구매력평가는 비교 가능한 상품군들의 가격을 사용한 전환율로,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설명하며, 이 전환율을 사용한 수치를 구매력표준이라고 함
자산소유자 (Property owner)	- 부동산 권리증서 소유자
교육수준 (The level of education)	- 교육수준은 국제표준교육분류 1997(ISCED 1997)에 의거하여 정의되었고, 총 3단계임. ① 저학력 : 중등교육의 2순환 이하(ISCED level 3c short까지), ② 중학력 : 중등교육의 2순환(ISCED level 3c short 이상에서 levels 3 - 4), ③ 고학력 : 고등교육(ISCED level 5 - 6)

출처: EU(2011),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tudy

거주하는 외국인의 총수를 대비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수의 비중으로 산출된다. 이는 “귀화율”로 간주되며, 외국인의 연령, 성별 등 세부 그룹별로 지표화가 가능하다. 이민자의 거주와 관련하여 상시거주지(usual residence)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법적 행정적 거주지를 말하며, 장기체류 신분(Long-term residence)은 발급된 허가증에 의해 5년 이상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인정 받은 것을 의미한다.

교육 영역에서 과잉자격률(overqualification rate)은 고등교육(ISCED 5 또는 6) 이수 이상 근로자 중 중등기술(ISCO 직업단계 4~9) 수준의 직업을 보유한 인구의 비중으로 지표화되며, 이 비중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 것으로 해석된다. 조기중퇴자는 18~24세 청년층 중 조사 시점 전 4주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다.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지표는 소득이나 빈곤과 관련된 지표가 주를 이룬다. 위험수준의 빈곤률 또는 사회적 배제율은 ① 사회적 이전 후 위험수준의 빈곤, ② 심각한 물질적 박탈, ③ 매우 낮은 수준의 노동 강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한편 사회적 이전 후 위험수준의 빈곤률은 위험수준의 빈곤



한계점(국민 등가 가처분 소득의 60%) 이하의 동등가처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비로 정의된다.

<표 1-10>은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핵심지표이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네 가지 정책 영역은 ① 고용, ② 교육, ③ 사회통합, ④ 적극적인 시민권이다. 고용 영역의 핵심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률이다. 교육 영역의 핵심지표는 최종학업 성취, 15세 인구 중 읽기, 수학, 과학 저성취자의 비중, 30-3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중, 교육 및 훈련의 조기 중퇴자 비중이다. 세 번째 정책 영역인 사회통합의 핵심지표는 소득 관련하여 (전체 인구의 중위 순소득) 대비 (중위 순소득 - 이민자 인구의 중위 순소득), 빈곤률 위험수준인 국가 중위 60% 미만의 순가처분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중,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지하는 인구의 비중, 전체 인구와 이민자 간의 자산 소유자 대비 비자산 소유자의 비중이다. 사회통합 영역의 핵심지표는 주로 경제적 지표로 구성된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표 1-10〉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핵심지표

정책 영역	지표	추가제안(2013년)
① 고용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 실업률 · 경제활동률 	공공 부문 고용, 임시직 고용, 파트타임고용, 장기간 실업, 해외학위 인정률, 유학생 유치율
② 교육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업 성취(초등, 중등, 초등 이하, 고등교육의 인구 비중) · 15세 연령의 읽기, 수학, 과학 저성취 비중 · 30-34세 연령 집단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중 · 교육 및 훈련 조기 중퇴자 비중 	유아교육과 보육, 평생교육 참여, 교육 고용 훈련 미참여자, Resilient Student, 저학력 평가 학교 집중도
③ 사회통합 (Social in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c{\text{중위순소득-이민자인구의중위순소득}}{\text{전체인구의중위순소득}}$ · 빈곤률 위험 수준: 국가 중위의 60% 미만의 순가처분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 · 건강상태를 좋거나 나쁘다고 인식하는 인구 비중 · 전체 인구와 이민자 간의 자산 소유자 대비 비자산 소유자 비율 	아동빈곤, 의료보호미충족, 기대수명, 주택비용부담, 주거과밀, 근로빈곤, 만성빈곤
④ 적극적인 시민권 (Active citizen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국적) 취득 이민자 비중 · 영구 거주권 또는 장기 체류권 보유 이민자 비중 · 선출된 대표들 중 이민자 비중 	자발적 조직참여, 노조가입, 정당당원, 정치활동

출처: EU(2011),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tudy

마지막 정책 영역은 적극적인 시민권이다. 이 영역의 핵심지표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비중(귀화율), 영구 거주권 또는 장기 체류권을 보유한 이민자의 비중, 선출된 대표자들 중 이민자의 비중이다. Zaragoza 선언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과잉학력 근로자의 비중, 자영업자, 언어 수준, 차별 인지,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감, 투표권, 소속감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였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에서 이민자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EU-LFS와 EU-SILC를 광범위하게 이용하였다. 이 조사들은 이민자만을 위해 기획된 조사는 아니지만, 이민자 식별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이민자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조사에서 이민자 현황을 파악할 때는 다음의 몇몇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EU-LFS와 EU-SILC 조사에는 최근 이주한 이민자들은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으며, 일부 이민자들은 표본들에서 누락되어 있다. 두 번째, EU-LFS는 개별 민간가구의 구성원을, EU-SILC는 모든 민간가구를 다루고 있어, 집단가구 및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세 번째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무응답률이다. 특정 이민자 그룹의 응답률은 전체 인구의 응답률보다 더 낮는데, 이는 언어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 네 번째, 표본의 크기와 관련하여 EU 회원국 중 이민자 수가 작은 회원국에서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확보가 되지 않아 EU-LFS와 EU-SILC를 통한 이민자들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시민권(국적) 및 출생국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EU-SILC는 모든 구성원들의 출생국과 시민권(국적) 취득 여부를 조사하지만, EU-LFS의 경우 16세 이상의 구성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민자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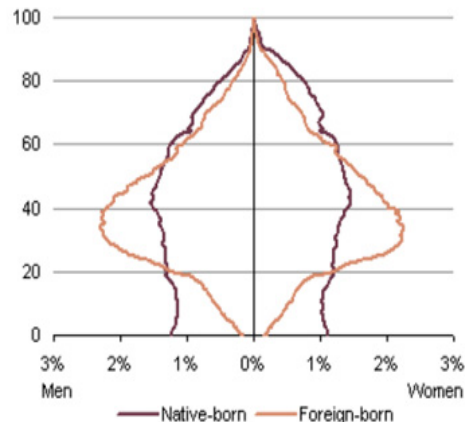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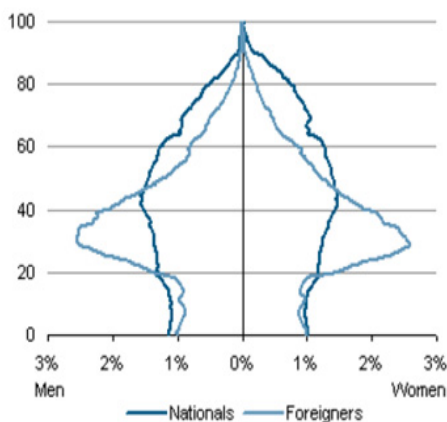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구성과 분석에서 연령그룹의 선택과 각 연령그룹별 영향력을 명확하게 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EU는 3개의 연령그룹(20세-64세, 25세-54세, 55세-64세)에 중점을 두고 통계지표를 작성하였다. 20세-64세 연령그룹은 “Europe 2020”의 첫 번째 목표⁹⁾를 위한 핵심 그룹이다. 55세-64세 연령그룹에 대한 지표화는 고령자들의 경제적·사회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해당 연령구간의 이민자 표본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다. 25세-54세 연령그룹은 경제활동 연령대의 이민자 현황 분석에 있어 최적의 연령그룹이다. 이렇게 연령구간을 설정할 경우, 비경제적 사유(학업, 은퇴 등)와 관련한 이민 효과 및 국적별, 출생국가별 상이한 연령구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당 연령그룹의 이민자 인구수는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이 가능할 만큼 크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9) 20-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여성 인력 참여 증대, 고령 근로자, 노동력에서의 이민자 통합을 통해 최저 69%에서 최고 75%까지 증가시켜야 함



[그림 1-7]과 [그림 1-8]은 국적별, 출신 국가별 내국인과 외국인, 국내출생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이다. [그림 1-7]을 보면, EU 27개 국가의 내국인의 연령구조가 종형인 반면, 외국인의 연령구조는 삼각형(마름모)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은 0~20세까지는 내국인보다 구성 비중이 적은 반면 20~40대 전반 연령대에는 외국인의 인구 구성 비중이 크다. 반면 50대 이상 고령연층의 인구 구성 비중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즉 외국인의 연령별 인구규모는 내국인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내국인보다 20~30대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두터운 반면, 고령층 및 유소년 인구는 내국인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그림 1-8]은 국내출생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이다. 국내출생 인구의 연령구조는 내국인의 연령구조와 대동소이한 반면 외국인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외국인 연령구조에 비해 해외출생 인구의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이 매우 적다. 이의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 해외출생 인구가 귀화하여 낳은 자녀세대는 국내출생 인구가 되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 중 해외출생 인구의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사 포괄 범위의 문제로, 조사대상 자체에서 유소년 인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7]과 [그림 1-8]을 통해 외국인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는 내국인과 국내출생 인구에 비해 청년층 인구는 두텁고, 고령층과 유소년 인구는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EU,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tudy(2011)

주: 작성 대상은 EU 27개 국가임

[그림 1-7] 내국인과 외국인의 연령구조

[그림 1-8] 국내출생과 해외출생 인구의 연령구조

<표 1-11>은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중 고용 분야의 주요 지표와 세부지표이다. 고용 영역에 활용된 자료는 EU-LFS, EU-SILC(EU-Statistics Income and Living Condition)이다. 고용 영역의 주요지표는 ① 고용률, ② 실업률, ③ 경제활동참가율, ④ 과잉자격, ⑤ 자영업자 비중으로 EU는 3개의 연령그룹(20세-64세, 25세-54세, 55세-64세)에 중점을 두고 통계지표를 작성하였으며, 고용률은 이중 20-64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지표화하였다. 세부지표는 출생국가(전체, EU born, non-EU born) 및 국적여부별(전체, 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로, 성·연령 집단별 통계표를 구성하여 제시한다.

〈표 1-11〉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고용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Zaragoza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① 고용 (Employment)	고용률 (employment rate)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출생지에 따른)의 고용률(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20-64세 국가별 foreigner(시민권여부에 따른)의 고용률(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실업률 (unemployment rate)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의 실업률(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born, non-EU born) 20-64세 국가별 foreigner의 실업률(성, 연령별)/ foreigner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경제활동참가율 (activity rate)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의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born, non-EU born) 20-64세 국가별 foreigner의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과잉자격 (Overqualification)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의 과잉학력 비중(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born, non-EU born) 20-64세 국가별 foreigner의 과잉학력 비중(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자영업자 비중 (Self-employment rate)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born, non-EU born) 20-64세 국가별 foreigner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자료: EU-LFS, EU-SILC(EU-Statistics Income and Living Condition)	

출처: EU(2011), Indicator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urvey



EU 27개국의 “고용률” 주요 분석결과는 출생국가별로는 해외출생 인구보다는 전체 인구의 고용률 평균이 높으며, 해외출생 인구를 세분화하면 EU 출생인구가 non-EU 출생인구보다 고용률 평균이 높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고용률은 전체 인구 고용률 평균보다 낮으며, 외국인 인구를 세분화하면 EU citizens이 third country nationals보다 고용률이 높다.

“과잉자격 비중”은 출생국가별로는 전체보다 해외출생 인구의 과잉자격률이 높으며, EU 출생보다는 non-EU 출생인구의 과잉자격률이 높다. 즉 교육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해외출생 인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국적별로 과잉자격 비중을 살펴보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과잉자격 비중이 높으며, EU citizens보다 third country nationals의 과잉자격 비중이 높다.

한편 “자영업자의 비중”은 출생국가별로는 전체보다 해외출생 인구의 자영업자 비중이 낮으며, 출생국가별로는 EU 출생인구가 non-EU 출생인구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국적별로는 전체 인구보다 외국인의 자영업자 비중이 낮으며,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EU citizens이 third country nationals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즉 국내출생 인구와 내국인에 비해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의 자영업자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12>는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중 교육의 주요지표 및 세부지표이다. 이 영역에 활용된 자료는 EU-LFS, OECD, PISA Survey(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이다. 교육의 주요지표는 ① 교육성취, ② 15세 인구의 학업능력(읽기·수학·과학) 저성취자의 비중, ③ 고등교육 성취 비중, ④ 교육 및 훈련 중도탈락률이다. “교육성취”의 세부지표는 학교급별 성취자의 비중을 국가별 해외출생 인구 및 성·연령별로 제시한다. “15세 인구의 학업 저성취자의 비중”의 세부지표는 읽기, 수학, 과학 영역별 저성취자의 비중이 제시되는데, 주요 분석결과는 전체보다 해외출생 학생의 영역별 저성취자의 비중이 높으며, 해외출생 인구의 출생국가별로는 EU born보다 non-EU born의 저성취자 비중이 높다. 즉 EU 27개 국가의 이민자 2세대(해외출생하여 이주한 학생)의 학업 저성취자의 비중은 전체 인구보다 높으며¹⁰⁾, 이민자의 출생국가별 15세 인구의 저성취자 비중의 차이(gap)에 대한 별도의 집계표를 제공한다.

“고등교육 성취 비중”은 30-34세 인구를 대상으로 고등교육(Tertiary) 성취율을 지표로 제시한다.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은 국내출생 인구나 내국인보다 고등교육 성취율이 낮은 수준이다. 30-34세를 준거집단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대체로 최종학력 이수시기를 마친 연령집단이기 때문이다. 해외출생 인구의 출생국가별로는 EU born이 non-EU born보다 고등교육 성취율이 높고,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EU citizens이 third country nationals

10) 독일의 15세 인구의 읽기 저성취자 비중은 전체 18%, 해외출생 인구 33%로 해외출생 인구가 15%p 높으며, 수학 저성취자 비중은 전체 19%, 해외출생 인구 31%로 해외출생 인구가 12%p 높다.

보다 고등교육 성취율이 높다. “교육 및 훈련의 중도탈락률”은 18-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표화하였다. 이민자의 출생국가별, 외국인의 국적별 중도탈락률 분석 결과, 출생국가별로는 EU born보다 non-EU born의 중도탈락률이 높으며, 국적별로는 EU citizens보다 third country nationals의 중도탈락률이 높다. 교육 및 훈련의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정규교육에 부적응하여 중도에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이후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잠재요인이다.

〈표 1-12〉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교육

EU 이민자 통합 지표(Zaragoza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② 교육 (Education)	교육성취 (Highest educational attainment)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의 tertiary 비중(성, 연령별)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의 secondary 비중(성, 연령별) 20-64세 국가별 foreign-born의 primary 이하 비중(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20-64세 국가별 foreigner의 tertiary 비중(성, 연령별) 20-64세 국가별 foreigner의 secondary 비중(성, 연령별) 20-64세 국가별 foreigner의 primary 이하 비중(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15세 인구의 학업능력 (읽기·수학·과학) 저성취자 비중 (low-achieving 15-year-old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15세 인구의 읽기 능력 저성취자 비중(출생국, 성별) 15세 인구의 수학 능력 저성취자 비중(출생국, 성별) 15세 인구의 과학 능력 저성취자 비중(출생국, 성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고등교육 성취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30-34세 고등교육 성취율(출생국, 성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30-34세 고등교육 성취율(시민권, 성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교육 및 훈련 중도탈락자 (early leavers from education & training)	18-24세 교육 및 훈련 중도탈락률(출생국, 성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18-24세 교육 및 훈련 중도탈락률(시민권, 성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자료: EU-LFS, OECD, PISA Survey(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출처: EU(2011), Indicator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urvey



<표 1-13>은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중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지표와 세부지표이다.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지표는 “중위 가처분소득”,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율”, “사회적

〈표 1-13〉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사회통합

EU 이민자 통합 지표(Zaragoza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③ 사회통합 (Social inclusion)	중위 가처분 소득 (Median disposable income)	20-64세 전체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 대비 foreign-born의 중위 가처분 소득(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20-64세 전체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 대비 foreigner의 중위 가처분 소득(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율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20-64세 빈곤위험률 또는 사회적 배제(출생국가,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20-64세 빈곤위험률 또는 사회적 배제(시민권,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사회적 이전 후 빈곤위험률 (Risk of poverty after social transfer)	20-64세 사회적 이전 후 빈곤 위험률(출생국가,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20-64세 사회적 이전 후 빈곤 위험률(시민권,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건강상태 인지율 (Self-perceived health status)	20-64세 건강상태 좋음, 나쁨에 대한 인지율(출생국가,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20-64세 건강상태 좋음, 나쁨에 대한 인지율(시민권,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재산 소유율 (Property ownership)	20-64세 Foreign-born의 재산소유 및 재산미소유 비율(출생국가,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born(EU born, non-EU born) 20-64세 Foreigner의 재산소유 및 재산미소유 비율(출생국가, 성, 연령별) - Group: 전체, foreigner(EU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자료: EU-LFS, EU-SILC(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출처: EU(2011), Indicator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urvey

이전 후 빈곤위험율”, “건강상태 인지율”, “재산 소유율”로 이에 대한 용어풀이는 <표 1-10>에 제시되었다. “중위 가처분소득”의 세부지표로는 20-64세 전체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 대비 해외출생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을 가구주의 성, 연령별로 제시한다. EU 국가의 중위 가처분 소득 분석 결과, 전체 가구보다 해외출생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이 낮은 수준이며, 해외출생 가구의 출생국가별로는 일부 예외국가가 존재하나, 대체로 EU born 가구가 non-EU born보다 중위 가처분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다. 가구주의 국적별로는 전체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 평균에 비해 외국인 가구의 평균이 낮은 편이며, 외국인 가구의 국적별로는 일부 예외국가는 있으나, EU citizens 가구보다 third country nationals 가구의 중위 가처분 소득이 낮은 수준이다.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율”의 EU 국가의 측정결과는 전체 가구 평균보다 해외출생 가구의 사회적 배제율이 높은 수준이며, 출생국가별로는 EU born보다 non-EU born 가구의 사회적 배제율이 높게 나타난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가구의 배제율이 높으며, EU citizens 가구보다 third country nationals 가구의 사회적 배제율이 높다. 전체 가구보다 해외출생 가구의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율이 9%p 높으며, 외국인 가구의 배제율은 전체 가구보다 12%p 높다. 해외출생 가구와 외국인 가구의 빈곤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율을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이전 후 빈곤위험률”은 위험수준의 빈곤 한계점(국민 등가 가처분 소득의 60%) 이하의 동등 가처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비로 측정된다. 사회적 이전 후 빈곤위험율은 해외출생 여부나 국적에 따른 집단 구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 인지율”은 다른 교육·경제·사회통합 지표들에서 이민자, 외국인의 상황이 내국인에 비해 불리하게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집단 간 큰 차이나 일관적인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의 “재산소유율”은 전체 가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을 비교해보면 외국인의 재산소유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고용, 교육, 사회통합 영역의 세부지표와 EU 27국의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일부 주관적인 지표를 제외하고, 전체에 비해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의 사회·경제·교육 수준이 열악하며,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객관적 지표가 더 나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14>는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중 적극적 시민권의 주요지표와 세부지표이다. 적극적 시민권의 주요지표는 “시민권 취득률”과 “체류허가”이다. 시민권 취득률은 해당 년도 초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총수 대비 1년간 시민권을 취득한 거주자 수의 비중으로 산출된다. 귀화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모든 종류의 취득이 포함되나, 이 지표를 “귀화율”로 간주한다.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은



국가별로는 포르투갈(5.8%), 스웨덴(5.3%), 폴란드(4.8%), 영국(4.8%)이 높은 수준이며, 연령집단별로는 0-14세의 시민권 취득률이 가장 높고, 15-39세, 4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난다.

〈표 1-14〉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적극적 시민권

EU 이민자 통합 지표(Zaragoza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④ 적극적 시민권 (Active citizenship)	시민권 취득률 (Acquisition of citizenship)	시민권 취득한 외국인 거주자 비율(성, 연령별) - Group: 전체, 0-14세, 15-39세, 40+ 시민권 취득한 제 3세계 국적자의 비중(성, 연령별) - Group: 전체, 0-14세, 15-39세, 40+
	체류허가 (Residence permits)	제 3국 국적자의 장기 거주 허가 비율
	자료: EU-LFS, EU-SILC(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출처: EU(2011), Indicator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urvey

2. OECD

OECD 회원국들의 정책 의제 가운데, 이민자와 자녀의 사회통합 정책이 중요해지면서 OECD에서는 주요 회원국들의 노동시장통합에 대한 일련의 분석을 시도하였다(OECD, 2007; OECD, 2008; OECD, 2012). 2012년에는 이민자통합의 주요 측면을 반영하는 OECD 이민자통합 지표를 구성하여, 회원국들에게 제공받은 범위 내에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2). OECD 이민자통합 지표의 구성영역은 ① 가구소득, ② 주택, ③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 ④ 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의 교육수준, ⑤ 노동시장 성과, ⑥ 직업특성, ⑦ 시민참여, ⑧ 차별로 EU 이민자 통합 지표의 구성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OECD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적과 출생지는 국가의 “이민자 인구”를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다. “외국인 인구”란 출생지의 국적을 유지하는 이주 경험이 있는 자들로 본국에서 출생한 2세대 및 3세대를 포함하는 반면, 귀화한 모든 이민자들은 배제된다. 한편 OECD는 “이민자 인구”를 출생 시 외국 국적을 갖고,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논의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주한 사람들만 포함하고, 국외 거주자의 귀국자녀들은 배제하게 된다.

“이민자의 현지출생 자녀”는 국외출생한 양쪽 부모를 가진 현지출생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한명이라도 현지출생 부모인 현지출생자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민자의 현지출생 자녀는 15-34세 그룹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연령 이민자들의 현지출생 자녀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은 15-34세 연령집단의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25-34세 연령집단의 결과를 제시한다.

OECD는 “이민자 가구”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의 2가지 대안적 개념을 제시한다. 첫째 가구부양 의무를 갖는 2명 중 최소 한명은 이민자인 가구, 둘째 가구부양 의무를 갖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자인 가구로, 가구부양 의무를 갖고 있는 한명 이상이 국외출생인 가구는 이민자 가구로 정의된다. 이민자 가구의 규모와 특성은 현지출생 가구와 비교하게 된다.

〈표 1-15〉 OECD 이민자 통합지표의 주요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이민자(Immigrant)	- 국외출생자
이민자의 본국출생 자녀 (Native-born children of immigrants)	- 국외출생 양부모를 가진 현지출생 자녀
본국출생 자녀 (Children of native-born)	- 최소 1명의 본국출생 부모를 가진 현지출생 자녀
이민자 가구 (Immigrant household)	- 가구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명 또는 두명)이 국외출생인 가구
혼합가구 (Mixed household)	- 2명의 준거인들로 구성된 가구에서 한명은 본국,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은 국외출생
본국출생 가구 (Native-born household)	- 이민자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최소 1명의 본국출생 부모가 가정을 부양하는 가구 - 본국출생 가구 중, 혼합가구는 부양자들 중 한명이 국외출생인 가구
이민 지위 (Immigration status)	-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국가에 의해 정의됨 - 이민자 가구는 주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한명 또는 두명)로 구성된 가구임 - 현지출생 가구는 최소 한명의 현지인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로, 현지출생 가구 중 혼합가구의 경우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중 한명은 국외출생이어야 함
정착이민자(Settled migrants)	- 5년 이상 현 국가의 주거지에서 거주한 이민자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혼합가구”는 2명의 준거인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한명은 현지출생, 다른 한명은 국외 출생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혼합가구가 이민자 가구의 50%-60%를 차지하며,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40%-50% 미만을 차지한다. 혼합가구의 특성치들은 본국출생 가구의 특성치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16〉 OECD 이민자 통합지표 구성

영역	주요 지표
0. 배경(맥락) 지표	· 이민자의 인구특성 · 이민자 자녀세대 · 이민자 가구특성
1. 가구소득	· 가구소득 분포 · 빈곤률
2. 주택	· 주택점유 형태 · 주거환경 · 주거비용
3.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	· 건강상태 인지 · 의료서비스 미충족
4.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	· 초등 전 교육 · 15세 읽기 능력 · 교육성취
5. 노동시장 성과	· 고용률 · 실업률 · 이민자녀들의 실업률과 NEET 비율
6. 직업특성	· 임시직 노동 · 파트타임 노동 · 기능수준 · 과잉자격 · 자영업 · 공공부문의 이민자 자녀의 고용상태
7. 시민참여	· 국적취득 · 투표참여
8. 차별	· 이민자의 집단 소속감 · 차별인지율

<표 1-17>은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배경지표, 가구소득의 주요지표와 세부 지표이다. 배경지표의 주요 지표는 이민자 인구 특성, 이민자 자녀세대, 이민자 가구 특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배경지표는 이민자 전체적인 상황을 아우르는 지표로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성격을 띤다. 이민자 인구 특성의 세부 지표로는 이민자 규모와 변화, 이민자의 세부 특성(성·연령·교육수준)별 인구 분포, 체류 기간 및 이민 사유, 이민자의 기원지 및 언어이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는 EU 통합지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출처 자료원에 의해 지표화된 것이다. 배경지표에 활용된 자료원은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 base, 캐나다 및 일본 센서스 자료, 미국 CPS, EU-LFS 등이다. 배경지표에서는 주로 이민자 가구와 자녀세대의 인구규모와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 논의한다.

〈표 1-17〉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배경지표,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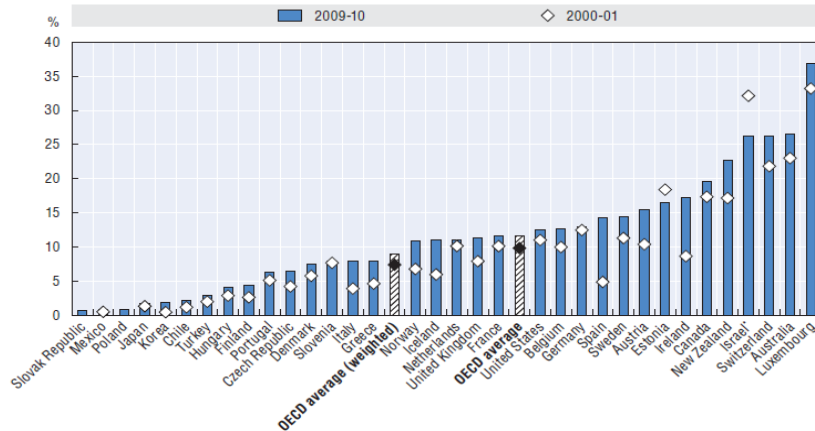
OECD 이민자 통합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배경(맥락) 지표 (Contextual indicators)	이민자의 인구 특성	이민자의 규모와 2000년 이후의 변화 성·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 분포 체류 기간 및 이민 사유 기원지 및 언어
	이민자 자녀세대	성·연령별 인구규모 및 구성 부모의 기원지 부모의 교육수준
	이민자 가구 특성	이민 가구의 규모와 구성 자녀 현황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
	자료원: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 bas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anadian Census, statistics Iceland, statistics Sweden, EU-LFS, Japanese Census,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US CPS	
① 가구소득 (Household income)	가구소득 분포	이민 지위에 따른 소득분포 상위, 하위 소득분포
	빈곤률	이민 지위별 빈곤률(이민 가구 vs 자국 가구) 기원지별 이민가구 빈곤률 이민지위별 아동(0-14세) 빈곤률
	자료원 :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Swiss Household Panel(SHP), Household Income and Living Dynamics in Australia(HILDA), Canadian 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SLID), New Zealand Household Economic Survey(HES), US CPS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9]는 OECD 국가의 해외출생 인구의 비중이다. 전체 인구 중 해외출생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시기별(2000-2001년, 2009-2010년)로 도시한 것이다. OECD 국가 중 해외출생 인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며, 룩셈부르크는 해외출생 인구의 비중이 3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2%로 해외출생 인구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의 이민 후발 국가들과,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이다. 한국은 해외출생 인구가 통계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통계는 외국인 기준의 통계이다. OECD 국가의 해외출생 인구 비중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2000-2001년에 비해 2009-2010년에 해외출생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Figure 1.1. **Total foreign-born population, 2000-01 and 2009-10**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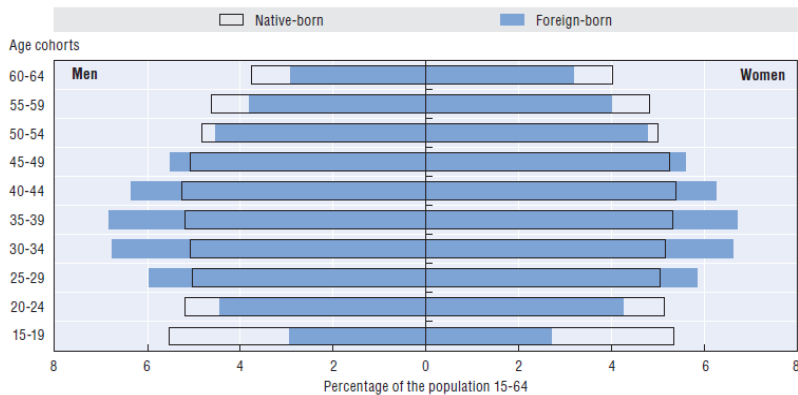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주: 한국과 일본은 해외출생 인구가 아닌 외국인 자료임

[그림 1-9] OECD 국가별 총 해외출생 인구 비중(2000-2001년, 2009-2010년)

[그림 1-10]은 국내출생 인구와 해외출생 인구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 연령구조의 OECD 국가 평균이다(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등 9개국 제외). EU의 출생국별 인구구조와 유사하게([그림 1-7], [그림 1-8]) 해외출생 인구는 국내출생 인구에 비해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Figure 1.3. **Age composition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by place of birth, 2005-06**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주: 전체 생산가능 인구(15-64세) 중 연령대별로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1-10] 생산가능 인구의 연령구성

OECD 주요 국가의 해외출생 인구의 이민사유별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을 위한 이민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51%), 스페인(47%), 이탈리아(44%)이며, 가족적 사유에 의한 이민의 비중은 네덜란드(68%), 프랑스(64%), 노르웨이(63%)의 비중이 높다. 인도주의(Humanitarian)에 의한 이민의 비중은 스웨덴(18%), 노르웨이(11%), 호주(10%) 순이며, 학업으로 인한 이민의 비중은 영국(14%), 호주(7%), 아일랜드(7%) 순이다. 이민사유에 대한 무응답의 비중은 독일 12%, 프랑스 8%로 높은 수준이다. 이민사유의 자료원으로는 EU-LFS 조사의 부가조사가 활용되었다.

〈표 1-18〉 OECD 주요 국가의 해외출생 인구의 이민사유별 분포(2008년)

Table 1.1. Foreign-born population by reason for migrating, 2008
Percentage of the total foreign-born population

	Employment	Family		Humanitarian	Study	Other	No answer	Total
		Family reunification and accompanying family	Persons who migrated before the age of 15					
Austria	26	30	22	10	7	5	0	100
Belgium	17	34	24	6	5	11	1	100
France	14	26	38	2	8	5	8	100
Germany	13	27	27	9	4	9	12	100
Greece	51	17	16	6	2	7	3	100
Ireland	40	19	17	2	7	12	4	100
Italy	44	25	25	0	2	2	1	100
Luxembourg	35	31	18	3	1	11	1	100
Netherlands	10	31	37	8	5	9	0	100
Norway	8	34	29	11	4	7	6	100
Portugal	25	23	39	1	3	8	2	100
Spain	47	25	15	0	3	8	2	100
Sweden	10	34	24	18	3	8	2	100
Switzerland	31	27	20	3	4	10	3	100
United Kingdom	23	22	23	5	14	9	4	100

Sourc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2008 *ad hoc* module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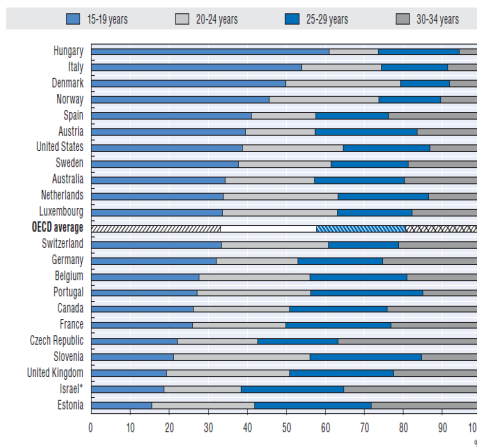
이민자의 자녀세대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EU와 OECD 이민자 통합지표에서 매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영역이다. 이민자 자녀세대는 이민자가 본국에서 출생한 자녀세대로, 내국인의 자녀세대와 비교를 통해 이들의 사회통합과 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측정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성 연령별 인구규모 및 구성, 부모의 출생국 분포 및 교육수준으로 구성된다.

[그림 1-11]은 이민자 자녀세대의 연령분포로 15-34세 연령으로 한정하여, 5세 연령 구간별 인구 비중을 OECD 국가별로 도시한 것이다. 이민자 자녀세대의 OECD 국가 평균 연령 분포는 15-19세는 32%, 20-24세는 22%, 25-29세는 26%, 30-34세는 20% 수준이다. 이민자 자녀세대 중 15-19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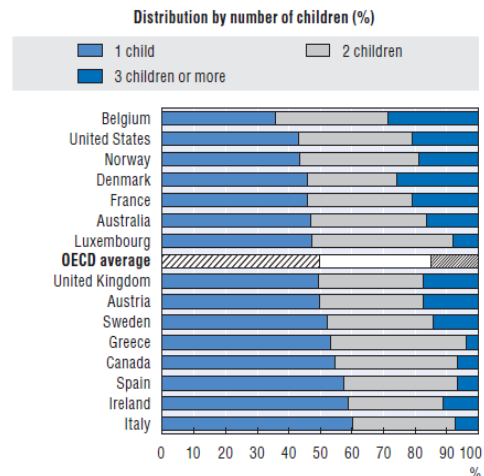
30-34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독일, 스위스 등으로 나타난다.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국가들은 2세대의 연령이 낮은 반면, 이민 전통이 오래된 국가들은 2세대의 연령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이민자 가구 특성의 세부지표로는 이민가구의 규모와 구성, 자녀의 현황, 거주 지역의 도시화 정도로 구성된다. [그림 1-12]는 OECD 국가 이민가구의 0-14세 자녀수 분포이다. 0-14세는 유소년 인구로 각별히 정책적인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이다. OECD 평균 이민가구의 0-14세 자녀수 분포를 보면, 1명은 53%, 2명은 34%, 3명 이상은 13% 수준이다. 이민가구 중 0-14세 연령대의 3명 이상 자녀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이며, 후발 이민 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3명 이상 자녀를 갖는 가구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11] 이민자 자녀세대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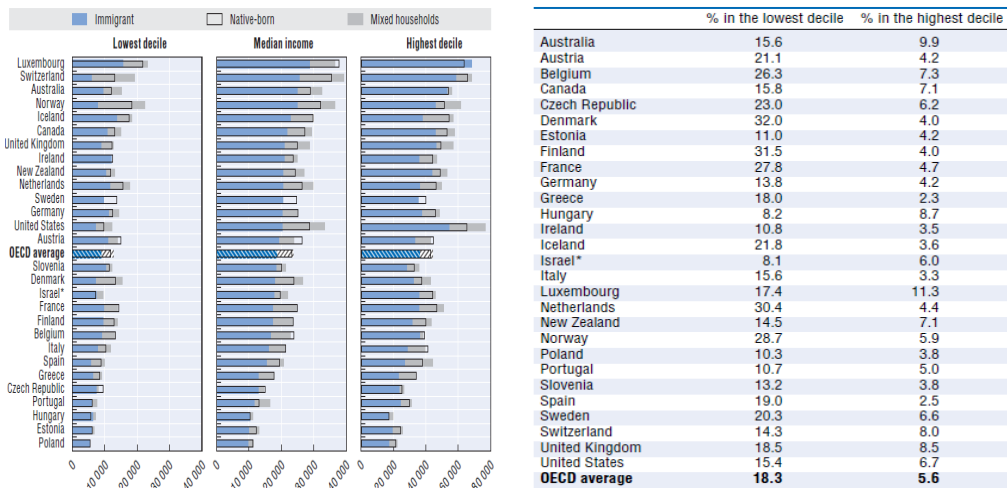


[그림 1-12] 이민가구의 0-14세 자녀수 분포

OECD 이민자 통합지표의 첫 번째 영역은 가구소득으로, 가구소득의 주요지표는 가구 소득 분포와 빈곤률이다. 가구소득 분포의 세부 지표로는 이민지위에 따른 소득 분포와 상위 및 하위 가구의 소득 분포이다. 가구소득의 자료 출처원은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Swiss Household Panel(SHP), Household Income and Living Dynamics in Australia(HILDA), Canadian 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SLID), New Zealand Household Economic Survey(HES), US CPS이다. EU-SILC은 가구소득과 주거환경에 관한 EU 국가 공통의 조사이며, SHP, HILDA, SLID은 가구패널 조사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나 표본의 크기는 작은 규모이다.

가구의 이민지위는 이민가구(immigrant household), 국내출생 가구(native-born household), 혼합가구(mixed households)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민지위별 연간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민가구의 소득이 세 유형 중 가장 적으며, 국내출생 가구와 혼합가구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두 가구 유형의 가구소득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4]는 OECD 국가별 이민자 가구소득 10분위수 분포(하위 10%와 상위 10%)이다. 이민자 가구 중 소득 하위 10%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32.0%), 핀란드(31.5%), 네덜란드(30.4%)이며, 상위 10%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11.3%), 호주(9.9%), 헝가리(8.7%)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이민자 가구의 소득 10분위수 분포를 통해 국가별 이민자 가구의 소득 현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이민 후발 국가로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들 국가의 이민자 정착이 아직 진행되는 단계임을 시사한다. 반면 유럽의 전통적인 이민 국가들의 소득 하위 10% 비중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가구의 이민가구의 0-14세 유소년 인구의 빈곤률을 살펴보면, 국내출생 가구의 유소년보다 이민자 가구에 속한 유소년들의 빈곤률이 높으며, 이민 지위별 유소년 인구의 빈곤률 격차가 큰 국가는 프랑스, 벨기에로 나타난다.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13] 이민지위에 따른 연간 평균 가처분 소득 [그림 1-14] 이민자 가구의 소득 10분위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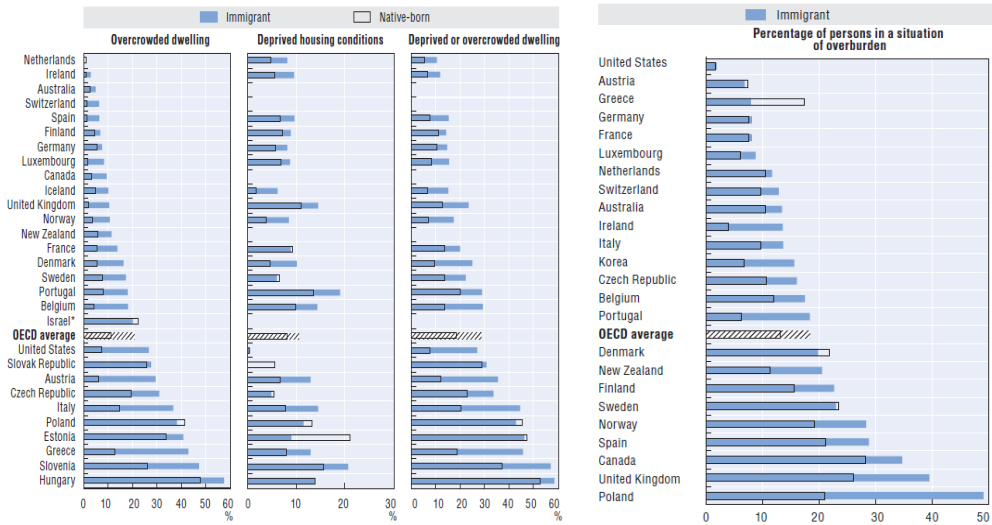
<표 1-19>는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중 주택,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 이민자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이다. 주택관련 지표의 자료출처원은 EU-SILC, SHP, HILDA, SLID, 이스라엘 LFS, KLIPS, HES, ACS이다. 주택의 영역의 주요지표는 주택점유 형태, 주거환경, 주거비용이다. 주택점유 형태의 세부지표는 이민지위별 자가 비율, 비자가 거주자 중 이민지위별 무상 혹은 임대 거주 비중이다. [그림 1-15]는 이민지위별 과밀 거주지

〈표 1-19〉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주택,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

OECD 이민자 통합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② 주택 (Housing)	주택점유 형태	이민 지위별 자가 비율 비자가 거주자 중 이민지위별 무상 혹은 임대 거주 비중
	주거환경	이민 지위별 과밀 거주지 혹은 궁핍 거주지 거주 비중
	주거비용	이민 지위별 주택 임대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율
자료원 : EU-SILC, SHP, HILDA, SLID, 이스라엘 LFS, KLIPS, HES, ACS		
③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 (Health status and access to health care)	건강상태 인지	이민지위별(foreign-born, native-born)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지율 이민지위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비율 이민지위별 건강관련 제약률
	의료서비스 미충족	이민지위별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
자료원 : EU-SILC, SHP, HILDA,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CCHS), 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NHIS)		
④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 (Education of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	초등 전 교육	이민지위별(이민자 중 본국 태생 아동 vs 내국인 아동) 초등 전 교육 참여율 이민지위별·초등 전 교육 참여여부별 PISA 읽기 점수의 차이
	15세 읽기 능력	이민지위별 출생지와 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PISA 읽기 점수 평균 이민 연령에 따른 PISA 읽기 점수의 차이
	교육성취	본인 출생지, 부모 출생지별 25-34세의 교육성취 25-34세의 이민지위 및 성별 고학력자 비중 25-34세의 이민지위별 고학력자의 성별 격차
자료원 :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EU-LFS ad-hoc module,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adian Census, Israeli LFS, US CPS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2)

또는 공핍 거주지에 거주하는 비중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가구는 과밀 혹은 공핍 거주지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OECD 평균 국내출생 가구의 11%가 과밀 지역에 거주하는 반면, 이민가구의 20% 가량이 과밀지역에 거주한다. 공핍한 주거 조건에 처한 비중은 OECD 평균 국내출생 가구는 8%인 반면 이민가구는 12% 수준이다. 한편 이민지위별 자녀세대의 과밀 지역 거주 비중의 격차는 더욱 큰데, 국내출생 가구의 자녀의 과밀지역 거주 비중은 19%인 반면, 이민가구에 속한 자녀의 과밀지역 거주 비중은 32%로 13%p 차이가 난다. [그림 1-16]은 이민지위별 주택 임대자의 주거비용 부담률이다. 호주와 그리스,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국내출생 가구에 비해 이민가구의 주거비용 부담률이 높다(국내출생 가구 13%, 이민가구 18%). 이민지위별 주거비용 부담률의 격차가 큰 국가들은 포르투갈, 폴란드, 영국, 한국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주: “과밀거주지”는 1인당 방 수, “공핍거주지”는 주거환경(시설)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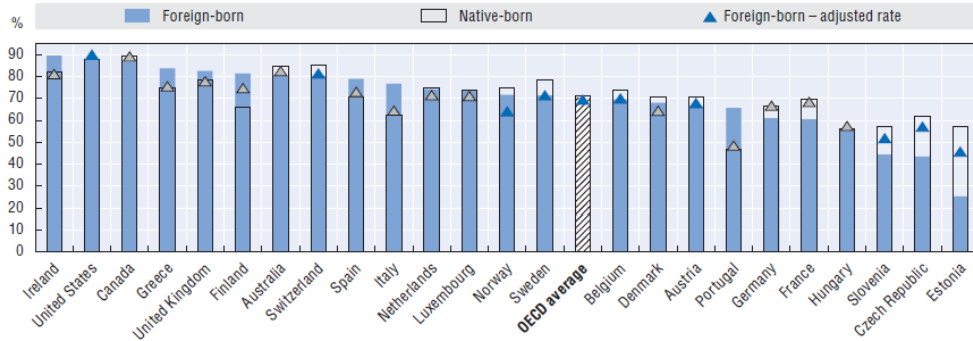
[그림 1-15] 이민지위별 과밀 거주지 또는 공핍 거주지 거주 비중 [그림 1-16] 이민지위별 주거비용 부담률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세 번째 영역은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Health status and access to health care)이다. 건강지위와 의료접근성에 활용된 자료는 EU-SILC, SHP, HILDA,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CCHS), 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NHIS)이다. 이 영역의 주요 지표는 건강상태 인지율, 의료서비스 미충족이다. 건강상태 인지와 관련된 세부 지표로는 이민지위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율, 이민지위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비율, 이민지위별 건강 관련 제약률이다.



[그림 1-17]은 해외출생 인구나 국내출생 인구의 건강상태 인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건강상태 인지율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작성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한 것이다.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지한 OECD 국가 평균은 70% 수준으로 국내출생 인구나 해외출생 인구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해외출생 인구보다 국내출생 인구의 건강상태 인지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에, 호주 등이며, 해외출생 인구의 건강상태 인지율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다. 다른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표에 비해 건강상태 인지율은 이민지위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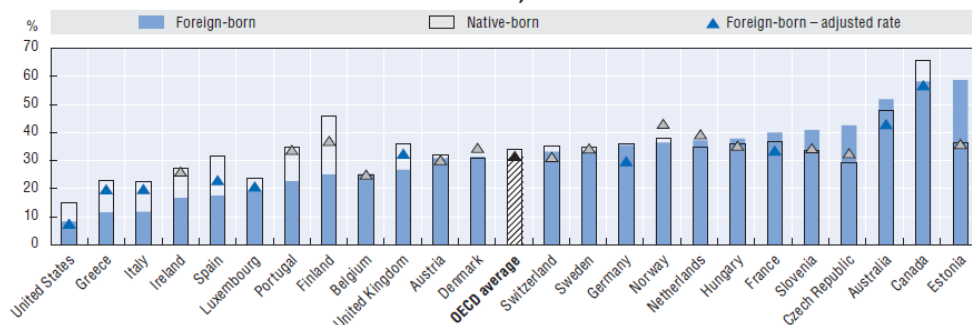
Figure 4.1. Percentage of foreign- and native-born adults reporting to be in good health, 2009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17] 이민지위별 건강상태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비율

Figure 4.2. Percentage of foreign- and native-born adults reporting to suffer from chronic health condition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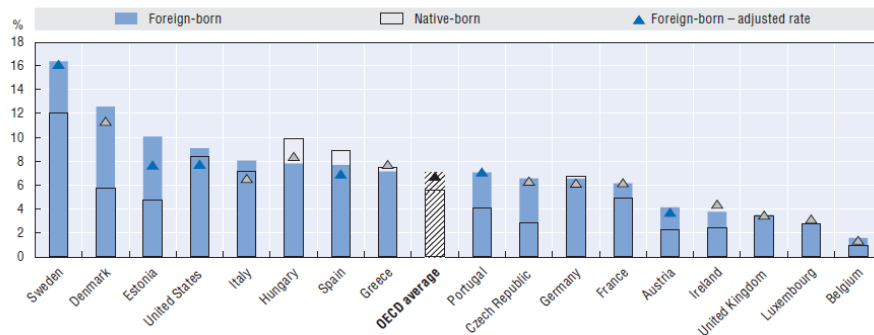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18] 이민지위별 만성질환률

[그림 1-19]는 이민지위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률이다. 의료 서비스 미충족의 OECD 평균을 살펴보면, 해외출생 인구는 7.5%, 국내출생 인구는 5.5% 수준으로 해외출생 인구의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이 높다. 국가별로 이민지위별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을 살펴보면, 헝가리, 스페인,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출생 인구의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이 국내출생 인구에 비해서 높게 포착된다. 즉 해외출생 인구의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충족이 국내출생 인구에 비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4. Percentage of foreign- and native-born adults reporting unmet medical needs, 2009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19] 이민지위별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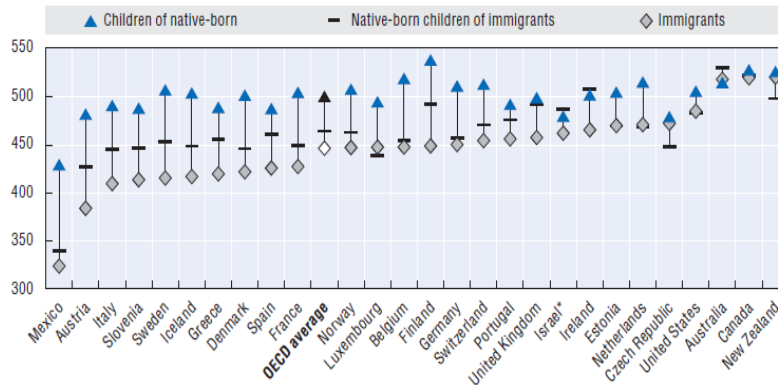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네 번째 영역은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Education of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이다. 이 영역의 자료원은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EU-LFS ad-hoc module,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adian Census, Israeli LFS, US CPS이다. PISA는 OECD 국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조사이며, EU-LFS의 부가조사 중 이민자의 그 자녀세대라는 조사가 EU 공통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US CPS에서는 이민자와 그 자녀세대의 언어,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자 본인뿐만 아니라, 2세대의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에 따른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민자 1세대는 일자리, 가족적인 사유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이주하나, 이들의 본국출생 2세대의 사회 부적응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민자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의 주요 지표는 초등 전 교육, 15세의 읽기 능력, 교육성취이며, 각각은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초등 전 교육은 이민지위별 초등 전 교육 참여율, 이민지위별 ·초등 전 교육 참여별 PISA 읽기 점수의 차이로 구성되며, 15세 읽기 능력은 이민지위별 출생지와 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PISA 읽기 점수의 평균, 이민 연령에 따른 PISA 읽기 점수의 차이로



구성된다. 교육성취는 본인의 출생지 및 부모의 출생지별 25-34세 청년층의 교육성취, 25-34세 청년층의 이민지위 및 성별 고학력자의 비중, 25-34세 청년층의 이민지위별 고학력자의 성별 격차 등의 세부지표를 제시한다.

[그림 1-20]은 본국출생 자녀세대와 이민자의 본국출생 자녀 및 이민자의 PISA 읽기 점수의 평균이다. OECD 평균은 본국출생 자녀는 500점, 이민자의 본국출생 자녀는 460점, 이민자는 450점 수준이다. 본국출생 자녀와 이민자의 본국출생 자녀의 PISA 읽기 점수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간 격차가 큰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본국출생 자녀와 이민자의 본국출생 자녀 집단 간 PISA 읽기 능력의 격차가 크지 않다. 즉 유럽의 이민 국가들에 비해 북미의 이민 국가들의 자녀세대의 읽기 능력은 본국출생 아이들과 견주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국가의 언어와 상관성이 크다. 영어권 국가는 비교적 이민자 자녀세대의 언어 습득이 수월하나,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본국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보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Figure 5.3. Mean PISA reading scores by place of birth and parents' place of birth,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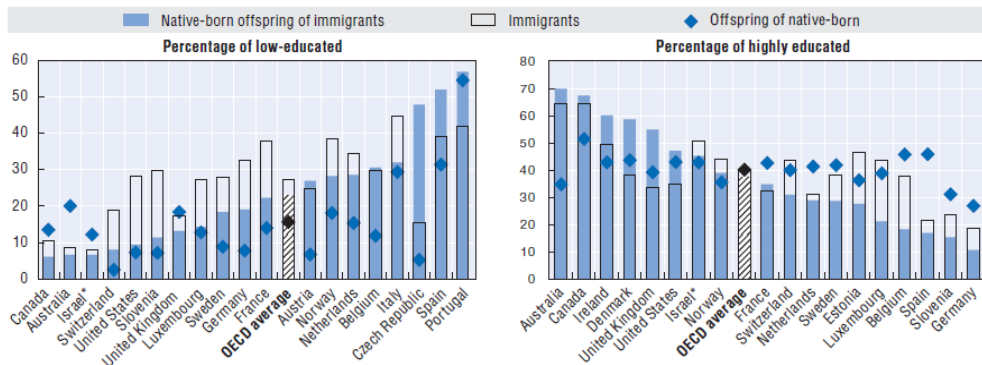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20] 출생지와 부모의 출생지에 따른 PISA 읽기 점수의 평균

[그림 1-21]은 출생지와 부모의 출생지별 25-34세 인구의 교육성취율을 저학력과 고학력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이민지위별로 이민자 자녀세대와 본국출생 자녀세대, 이민자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교육성취도를 제시한다. 저학력자의 비중의 OECD 평균은 본국출생 자녀세대는 15%, 이민자의 본국출생 자녀는 27% 수준으로 이민자 자녀세대의 저학력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반면 고학력자의 비중의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본국출생 자녀세대와 이민자의 자녀세대 간 고학력자의 비중은 유사한 수준

이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미국은 본국출생 자녀세대보다 이민자의 자녀세대의 고학력자 비중이 오히려 더 높으며 호주, 캐나다의 이민자의 자녀세대의 대학진학률은 60%를 상회한다. 반면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이민자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본국출생 자녀세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벨기에, 스페인의 이민자 자녀세대와 본국출생 자녀세대 간 고학력 비중의 격차가 큰 편이다.

Figure 5.6. Educational attainment of persons aged 25 to 34, including persons still in education, by place of birth and parents' place of birth, 2008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주: 교육수준은 국제표준교육분류 1997(ISCED 1997)에 의거하여 정의되었고, 총 3단계임. ① 저학력 : 중등교육의 2순환 이하(ISCED level 3c short 까지), ② 중학력 : 중등교육의 2순환(ISCED level 3c short 이상에서 levels 3-4), ③ 고학력 : 고등교육(ISCED level 5-6)

[그림 1-21] 출생지와 부모의 출생지별 25-34세 인구의 교육성취

이민자 자녀세대의 교육성취는 이후 노동시장 성과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주한 국가에서 교육성취를 이루기 위해 기본적인 것은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PISA의 읽기 능력을 OECD 국가별로 살펴보면, 북미권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은 이민자의 자녀세대의 읽기 능력이 본국출생 자녀세대와 견주어 크게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럽의 이민국가들의 이민자 자녀세대는 본국출생의 자녀들과 견주어 읽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본국의 언어(영어, 비영어권), 이민자를 위한 언어지원 프로그램(정책적 지원), 이민자의 지리적 공간 분포(이민자만의 폐쇄적인 지역 형성) 등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지리적·정책적 요인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OECD 국가의 청년층(25-34세) 교육성취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이민자 자녀세대의 저학력자 비중이 높고, 대학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은 본국출생 자녀세대와 견주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20〉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노동시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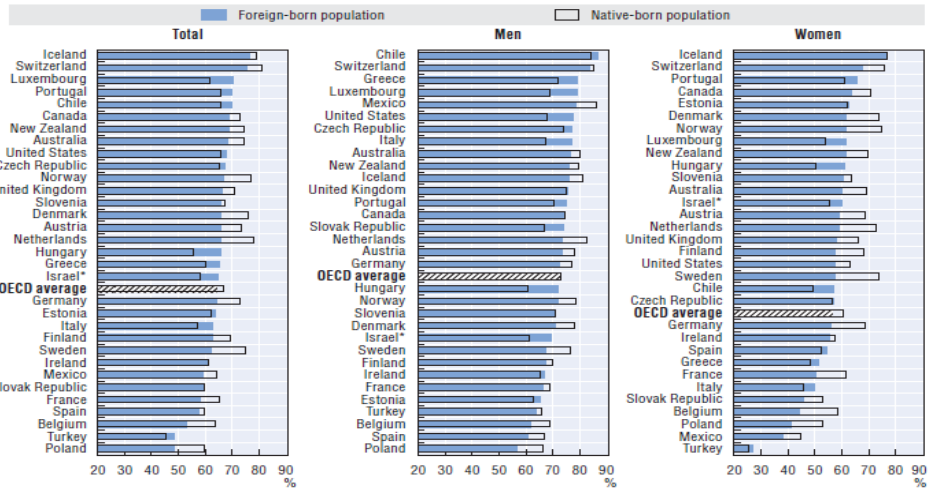
OECD 이민자 통합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⑤ 노동시장 성과 (Labor market outcome)	고용률	<p>(성과와 추이) 이민자와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 이민자와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차이 이민자의 성별 고용률 시점별 비교(2000-01 & 2009-10)</p> <p>(수렴) 이민자와 내국인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의 차이(최근이민/ 모든이민) 체류기간에 따른 시점별 생산가능인구 이민자의 고용률 변화</p> <p>(이민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성과) 15-34세 이민자 자녀와 내국인 자녀의 부모의 출생지와 성에 따른 고용률(재학 중 제외) 15-34세 이민자 자녀세대와 내국인 자녀의 교육수준별 고용률의 차이</p>
	실업률	<p>(성과와 추이) 출생지와 교육수준별 실업률 이민자와 내국인 생산가능 인구의 실업률 이민자와 내국인 생산가능 인구의 실업률의 성별 격차 이민자와 내국인 생산가능 인구의 실업률 변화 출생지 교육수준에 따른 시점별 실업률의 변화</p> <p>(이민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 15-34세 이민자 자녀세대와 내국인 자녀세대의 실업률 15-34세 이민자 자녀세대와 내국인 자녀세대의 실업률 차이 (전체, 남성, 여성) 15-34세 이민자 자녀세대와 내국인 자녀세대의 장기 실업률</p>
	이민 자녀들의 실업률과 NEET 비율	<p>15-34세 이민자 자녀세대와 내국인 자녀세대의 부모의 출생 지별 니트 비율(교육수준별) 15-34세 이민자 자녀세대의 구성별(장기실업/단기실업 등) 니트 비율 15-34세 이민자 자녀세대와 내국인 자녀세대의 구성별(장기 실업/단기실업 등) 니트율 차이</p>
	자료원: EU-LFS,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LFS, US CPS, EU-LFS ad-hoc module, 노르웨이 등록자료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다섯 번째 영역은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이다. 노동시장 성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성과 지표에 활용된 자료는 EU-LFS, 호주·캐나다·이스라엘·

뉴질랜드의 LFS, US CPS, EU-LFS ad-hoc module, 노르웨이 등록자료이다. 노동시장 성과의 주요 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이민자녀들의 실업률과 NEET 비율이다. 고용률의 세부 지표로는 노동시장 성과와 추이, 수렴, 이민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 성과와 추이는 이민자와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 이민자와 내국인의 생산가능인구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차이, 이민자의 성별 고용률의 시점별 비교이다. 수렴은 이민자와 내국인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의 차이, 체류기간에 따른 시점별 생산가능인구 이민자의 고용률 변화로 고용률의 수렴현상을 파악한다. 고용률의 마지막 세부지표로 이민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성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주로 내국인 자녀와의 비교를 통해 부모의 출생국가 등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제시한다.

[그림 1-22]는 해외출생 인구나 본국출생 인구의 고용률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해외출생 인구의 고용률의 OECD 국가 평균은 64%이며(남성은 72%, 여성은 56%), 고용률 55% 미만인 국가는 벨기에, 폴란드, 터키이며, 75% 이상으로 높은 국가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이다(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낮음). 이민자의 고용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칠레, 미국,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11개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이민자보다 내국인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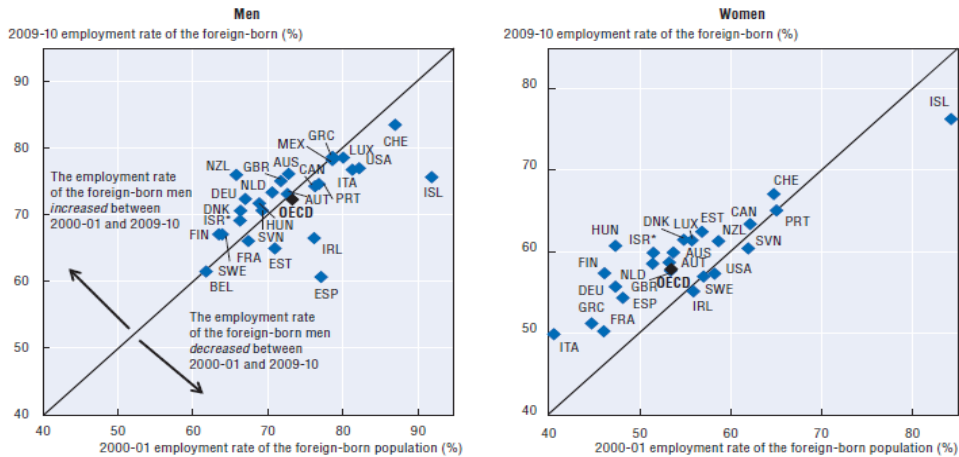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22] 15-64세 해외출생 인구나 본국출생 인구의 고용률 비교



[그림 1-23]은 15-64세 해외출생 인구의 고용률을 시점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0년 기간 중 OECD 국가 이민자의 평균 고용률은 1.5%p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는 강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의 고용률은 동 기간 중 4.3%p 상승하였으나, 남성은 1.1%p 하락하였다. 특히 OECD 국가 이민자 여성의 고용률은 매우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남성 중 2000-2001년과 2009-2010년 기간 중 이민자의 고용률이 상승한 국가는 호주, 네덜란드 등이며, 하락한 국가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여성의 경우 미국,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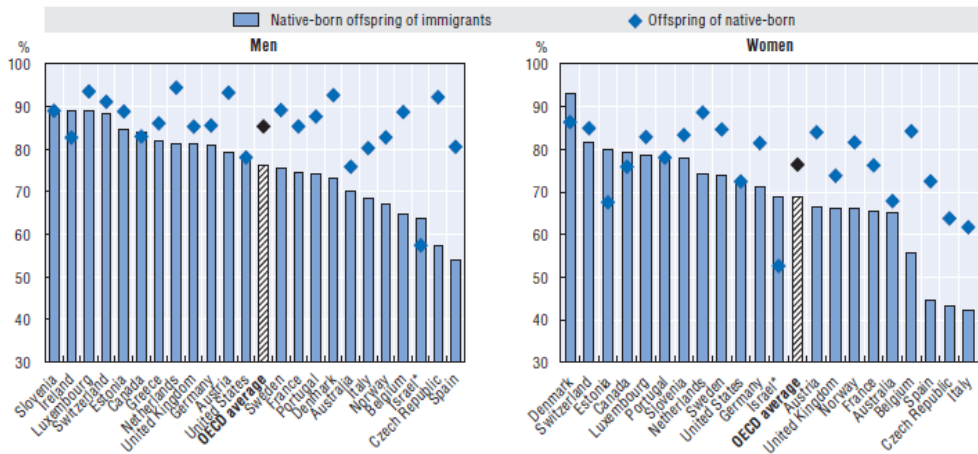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23] 15-64세 해외출생 인구의 고용률 시점별 비교(2000-2001년, 2009-2010년)

[그림 1-24]는 부모의 출생국가와 성별 15-34세 인구의 고용률이다. 이민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민자 자녀와 내국인 자녀의 부모의 출생국가별 15-34세 인구의 고용률을 비교하였다. 이민자의 자녀세대는 국외출생 양부모를 가진 현지출생 자녀세대로 정의되며, 내국인 자녀는 최소 1명의 본국출생 부모를 가진 현지출생 자녀세대를 의미한다.

OECD 국가 평균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고용률은 73%로, 이민자의 자녀세대는 본국 자녀세대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평균적으로 두 집단 간 고용률의 격차는 약 10%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자녀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큰 국가는 벨기에와 스페인으로 약 27%p 가량 격차가 발생한다. 반면 에스토니아와 이스라엘, 폴란드 이민자의 자녀세대가 내국인 자녀세대보다 고용률이 높다.

이민자 자녀세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를 살펴보면, 부모의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민자 자녀세대의 평균 고용률은 남성은 77%, 여성은 69% 수준이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자녀세대보다 본국출생 부모의 자녀세대가 더 크다. 특히 덴마크의 이민자 자녀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민자 자녀세대의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민자 자녀세대와 본국 자녀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큰 국가는 남성은 체코, 스페인, 벨기에 등이며, 슬로바니아,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이스라엘은 이민자 자녀세대가 본국 자녀세대보다 고용률이 높다. 여성의 경우 두 집단 간 고용률 격차가 큰 국가는 스페인, 벨기에 등이며, 이민자 자녀세대의 고용률이 더 높은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캐나다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주: 부모의 출생국가는 아버지의 나라?

[그림 1-24] 부모의 출생국가와 성별 15-34세 인구의 고용률: 2008년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여섯 번째 영역은 직업특성이다(<표 1-21> 참고). 직업특성의 주요지표는 임시직 노동, 파트 타임 노동, 기능수준, 과잉자격률, 자영업, 공공부문의 이민자 자녀의 고용 상태이다. 직업 특성에 활용된 자료는 EU-LFS,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의 LFS, US CPS,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 Training, Canadian Censuses, EU-LFS ad-hoc module이다. 임시직 노동의 세부지표는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세대의 임시직 비중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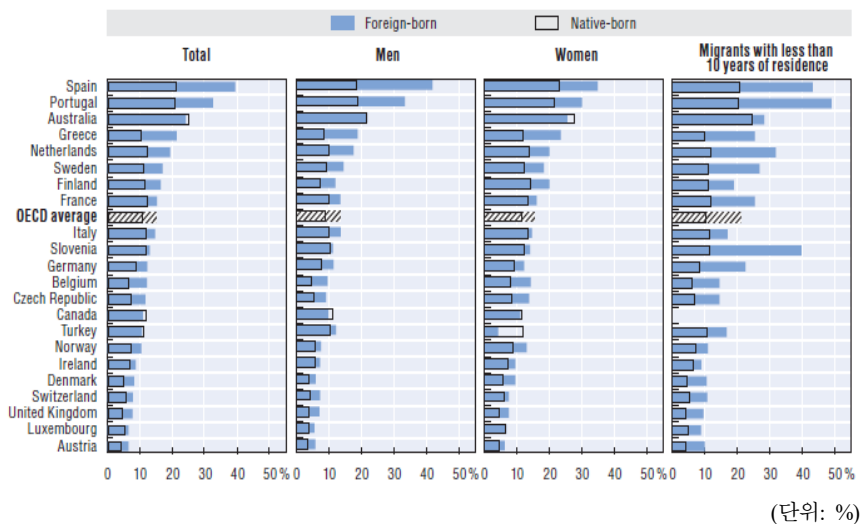
〈표 1-21〉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직업특성

OECD 이민자 통합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⑥ 직업특성 (Job characteristic)	임시직 노동 (Temporary work)	(성과와 추이) 15-64세 이민자 노동자의 임시직 비중(시점 간 비교) 15-64세 이민자 및 내국인 노동자의 임시직 비중(성, 체류기간별) (이민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 15-34세 이민자녀 세대 임시직 비중 15-34세 이민자녀 세대의 성별 임시직 비중
	파트 타임 노동 (Part-time work)	15-64세 이민자와 내국인의 파트 타임 노동자 비중 15-64세 이민자와 내국인의 파트 타임과 풀타임 고용률 구성(여성 노동자)
	기능수준 (Skill level of employment)	15-64세 노동자 중 저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 노동자 비중 15-64세 이민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성별 저숙련 노동자 비중
	과잉자격 (Overqualification)	(성과와 추이) 15-64세 출생지별 성별 15-64세 고학력 근로자의 과잉자격을 15-64세 고학력 이민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과잉자격률의 변화 (이민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성과) 15-34세 내국인 자녀와 이민자 자녀의 과잉자격률 비교 15-34세 내국인 자녀와 이민자 자녀의 고학력자의 과잉자격률 비교
	자영업 (Self-employment)	15-64세 이민자와 내국인의 자영업 비중 15-64세 체류기간에 따른 이민자의 자영업 비중 15-64세 출생지별 이민자의 자영업 비중
	공공부문의 이민자 자녀의 고용상태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s in the public sector)	15-34세 내국인 자녀와 이민 자녀세대의 공공 부문의 고용률 15-34세 부모의 출생지별 공공부문과 다른부문의 고용률 분해 15-34세 이민 자녀세대의 학력수준별 공공부문의 고용률
	자료원: EU-LFS,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LFS, US CPS, 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 Training, Canadian Censuses, EU-LFS ad-hoc module, 이스라엘 LFS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이민자의 15% 가량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본국 출생 인구는 10% 가량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그림 1-25] 참조). 15-64세 생산가능 인구 중 임시직의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해외출생 취업자의 임시직 비중이 높다. 국가별로 해외출생 취업자와 본국출생 취업자의 임시직 비중을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해외출생 취업자의 임시직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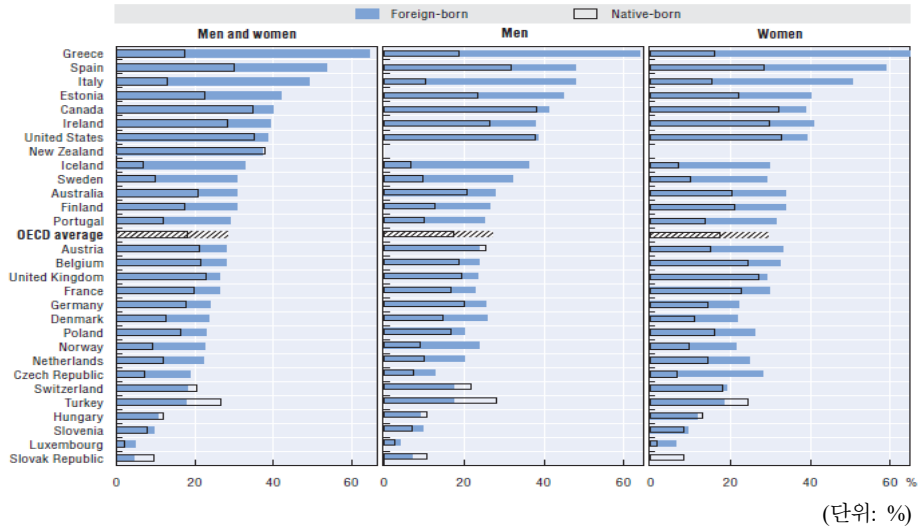
한편 취업자 중 낮은 기능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중은 OECD 평균 16%, 본국출생 취업자 7%로, 해외출생 취업자의 낮은 기능 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민자는 낮은 직능 수준의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는 가장 그 현상이 심한 국가로 룩셈부르크는 낮은 직능 수준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그리스와 스위스는 50% 수준이다.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25] 15-64세 인구의 해외출생 취업자와 본국출생 취업자의 임시직 비중

[그림 1-26]은 15-64세 고학력 취업자의 출생국가와 성별 과잉자격률이다. 과잉자격률은 고등교육(ISCED 5 또는 6) 이수 이상 근로자 중 중등기술(ISCO 직업단계 4-9) 수준의 직업을 보유한 인구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과잉자격률 비중을 살펴보면, 고학력 이민자의 과잉자격률은 OECD 평균 28.3%이며, 본국출생 인구는 17.6%로 해외출생 인구의 과잉자격률이 10.7%p 높은 수준이다. 해외출생 인구의 과잉자격률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민 후발국인 남부 유럽 국가들로 그리스의 해외출생 인구의 과잉자격률은 60%를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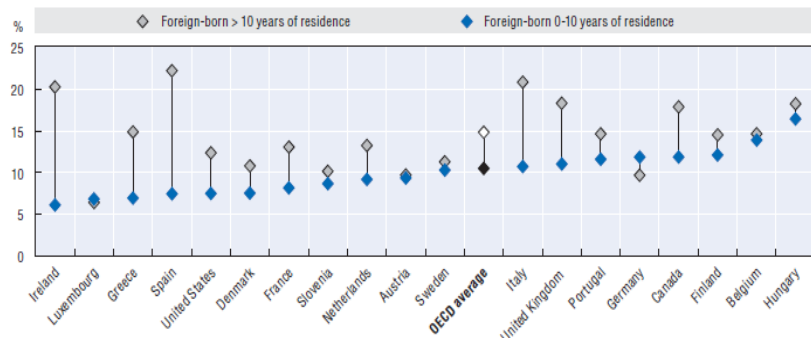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주: “과잉자격을”은 고등교육(ISCED 5 또는 6) 이수 이상 근로자 중 중등기술(ISCO 직업단계 4-9) 수준의 직업을 보유한 인구의 비중으로 정의됨

[그림 1-26] 15-64세 고학력 취업자의 출생국가와 성별 과잉자격을

한편 해외출생 인구나 본국출생 인구의 자영업 비중을 살펴보면, 해외출생 인구의 자영업 비중은 12.6%로 본국출생 인구의 자영업 비중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의 자영업 비중은 해외출생 인구의 체류기간별 차이가 있는데,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체류기간이 짧은 해외출생 인구보다 자영업의 비중은 증가한다. [그림 1-27]은 체류기간별 15-64세 해외출생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다. 거주기간 10년 이하 해외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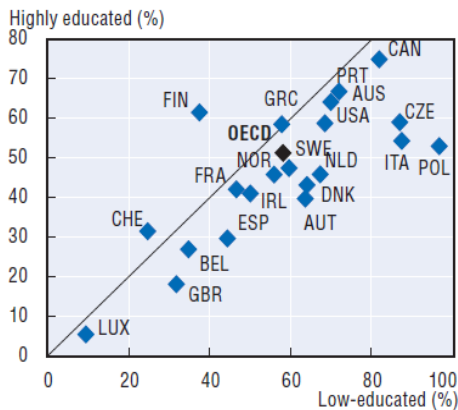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27] 체류기간별 15-64세 해외출생 자영업자 비중

인구의 자영업 비중의 OECD 평균은 10% 수준이며, 거주기간 10년 이상 해외출생 인구의 자영업 비중은 15%로 거주기간이 증가하면 자영업의 비중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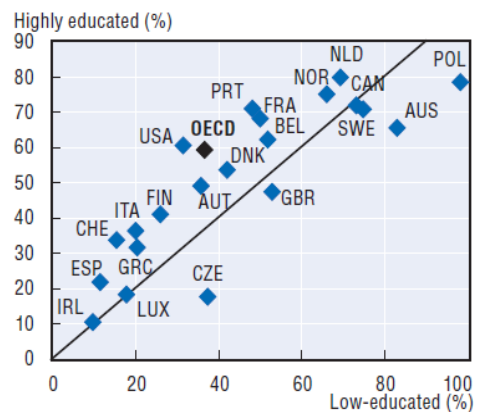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일곱 번째 영역은 시민참여이다(<표 1-22> 참조). 시민참여의 주요지표는 국적취득과 투표참여이다. 시민참여에 활용된 자료는 Database on Immigrant in OECD Countries(DIOC), German Micro census, EU-LFS, EU-LFS ed-hoc module, CPS, European Social survey data, 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 캐나다 LFS 이다. 국적취득의 세부지표는 이민인구의 국적과 귀화율 추이이다. 귀화율은 시민권(국적)을 취득 외국인 비중을 의미하는데, 매년 초 그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총수 대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수의 비율로 산정된다.

[그림 1-28]은 15세 이상 인구의 이민자 중 귀화율이다. OECD 국가를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로 구분하여 이민자 중 귀화율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두 개의 축으로 제시한 것이다. OECD 고소득 국가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경우, 저학력자의 귀화율이 높은 반면, 고학력자의 귀화율은 낮다. 반면 OECD 저소득 국가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경우, 고학력자의 귀화율이 저학력보다 월등히 높아 소득수준별 두 개의 그룹별 귀화율의 양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OECD 고소득 국가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귀화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이다.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28] 15세 이상 인구의 이민자 중 귀화율
(OECD 고소득 국가 출생)(2005-06)



[그림 1-29] 15세 이상 인구의 이민자 중 귀화율
(OECD 저소득 국가 출생)(2005-06)

한편 해외출생 인구와 본국출생 인구의 투표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해외출생 인구의 투표참여율이 본국출생 인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부 예외적인 국가도 있는데, 헝가리와 폴란드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해외출생 인구의 투표율이 본국출생 인구보다 높게 나타난다(헝가리 native-born 남성 77%, foreign-born 남성 90%).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여덟 번째 영역은 차별이다(<표 1-22> 참조). 차별 영역의 주요 지표는 이민자의 집단 소속감과 차별인지율이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에서는 차별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나, 미국에서는 이민자의 차별에 관해 별도로 조사하지

〈표 1-22〉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시민참여,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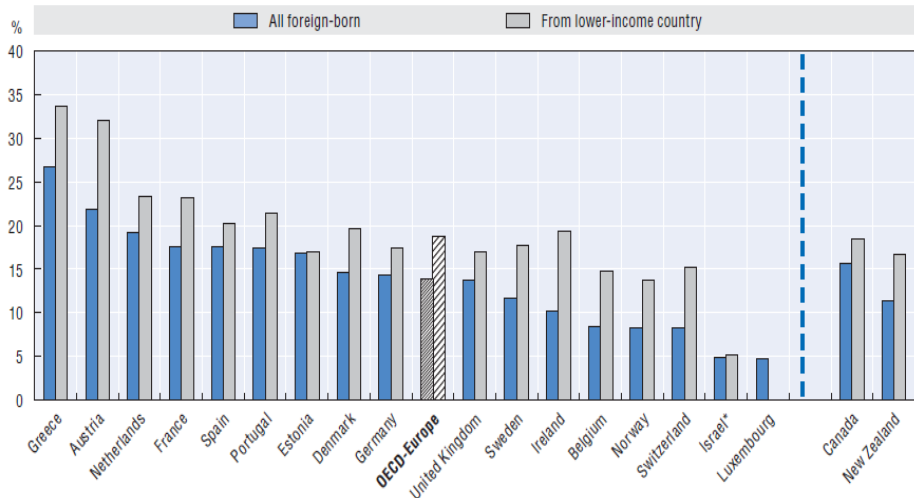
OECD 이민자 통합 지표: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⑦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국적취득	(이민인구의 국적) 15-64세 이민자의 국적 분포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역에 따른 이민자의 국적 분포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에 따른 귀화자 비중 (귀화율 추이) 귀화자 수 추이 및 외국인 중 비중(2000-2010년) 15세 이상 인구의 이민자 중 국적취득 비중('00-'01과 '09-'10년 비교)
		이민자와 내국인의 성별 선거참여율 비교 선거참여 OECD 고소득 국가 그룹과 다른 그룹의 이민자의 선거참여율
	자료원: Database on Immigrant in OECD Countries(DIOC), German Micro census, EU-LFS, EU-LFS ed-hoc module, CPS, European Social survey data, 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 캐나다 LFS	
⑧ 차별 (Discrimination)	이민자의 집단 소속감	(생산가능 인구) 15-64세 이민자 중 집단 소속감을 갖는 이민자의 국가별 비중 15-64세 이민자 중 사회경제적 특성별 집단 소속감을 갖는 비중 (이민자 자녀세대) 15-34세 이민 자녀세대 중 사회경제적 특성별 집단 소속감을 갖는 비중
		(생산가능 인구) 15-64세 이민자 중 최근 5년 이내 인종, 민족, 문화와 관련하여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비율 15-64세 이민자 중 최근 12개월 이내 민족, 인종, 국적과 관련하여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비율 (이민자 자녀 세대) 15-34세 이민 자녀세대 중 최근 5년 이내 민족, 문화, 인종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받았다고 인지하는 비율
	자료원: 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ESS), 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NZGSS)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2)

않는다. 이민자의 집단소속감의 세부지표는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세대의 집단소속감을 느끼는 비중으로 구성된다. 한편 차별인지율은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최근 5년 이내에 인종, 민족, 문화적 이유로 차별받은 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30]은 15-64세 이민자의 국가별 차별인지율이다. 이민자의 민족, 국적 또는 인종에 관한 차별인지율은 그리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높으며, 그리스는 이민자의 차별인지율은 26%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남부 유럽 국가 이민자의 차별인지율은 OECD국가 평균인 14%를 상회한다. 한편 벨기에, 노르웨이,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이민자의 차별인지율은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관련 통계(GSS)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실제 차별 경험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시된 OECD국가의 평균은 EU국가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민자가 겪는 차별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측정방법이 국가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차별은 국가 간 지표 비교에 있어서 매우 도전적인 영역이다. 해당 국가의 이민 인구의 고유한 특성들은 그들의 차별인지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별 이민자의 차별 인지에 대한 측정 자료들은 이민자에 대한 반차별과 다양성, 이민자 통합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단위: %)

출처: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2012)

[그림 1-30] 15-64세 이민자의 차별인지율



3. UN의 SDGs

2000년 제 55차 UN총회의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 개발목표(MDGs)는 2015년까지 15년간 국제개발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에 중심을 두고, 8개 목표와 21개 세부목표, 6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MDGs는 UN 및 OECD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가 되었으며, 개도국에 중심을 두고 수립되었으며, 환경적 이슈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을 측정하는 지표는 현재 220여 개가 논의되고 있다. SDGs는 MDGs의 확장 및 완성을 지향하며, 개도국과 선진국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2030 의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수평적 관점을 확보하고, 빈곤과 삶의 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6개 영역은 존엄(Dignity), 정의(Justice), 파트너십(Partnership), 인류(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이며, 17개 목표로 구성된다.

〈표 1-23〉은 SDGs 지표 리스트이다. 17개 목표 중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에 이민자 관련 지표가 제시된다. 세부목표인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토록 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에서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근로자가 부담한 채용비용(recruitment cost)의 비중, 10.7.2 국제이민정책지표가 잠정 지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세부목표 10.c는 2030년까지 이민자 송금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로 이민자의 송금 관련 지표가 제시된다.

〈표 1-23〉 SDGs 지표 리스트

목표(17개)	세부목표	잠정치표 리스트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10.7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 및 이동이 가능토록하고 잘 관리된 이민정책 수립 및 이행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근로자가 부담한 채용비용(recruitment cost)의 비중
		10.7.2 국제이민정책지표
		10.7.3 인구 십만명을 기준으로 추적이 되거나 되지 않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 (성별, 연령별, 착취유형별)
	10.c 2030년까지 이민자 송금 수수료 3% 이하로 감소 및 5%를 초과하는 송금 장벽 제거	10.c.1 송금된 금액 대비 송금 비용의 비율

이민자의 본국으로 송금 문제는 이민이 비단 개인의 경제적인 선택이 아닌 가족적인 전략이 된다. 우리 나라는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과 라티노들은 이민을 통해 이민국에서의 경제적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화가 있다. 본국으로 송금되는 경제적 지원은 남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의 기능을 하며, 이주자의 안정적인 정착 후 남은 가족이 추가적으로 이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 국가에서 얻은 연간소득 대비 근로자가 부담한 채용비용 비중과 국제이민정책지표 또한 SDGs의 잠정지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4. 소결

앞서 EU, OECD의 이민자 통합지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민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크게 국적(Citizenship), 출생국가(Country of birth), 체류기간(Period of arrival in the country)을 통해 정의한다. 이민자 정의를 국적으로 한 경우 외국인 인구(foreigner)로, 출생국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로 개념화하게 된다.

EU의 이민자 통합지표의 목적은 이민자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통합정책 결과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합지표들은 ① 고용, ② 교육, ③ 사회통합, ④ 적극적인 시민권의 네 개 영역을 핵심으로 한다. EU 이민자 통합지표의 자료원은 EU 노동력 조사(EU-LFS), EU 소득 및 생활환경 조사(EU-SILC),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등으로 여러 출처의 자료원을 활용하여 이민자 공통의 지표를 구축하였다. EU에서 이민자 통합지표의 구축이 가능하였던 것은 EU 국가들 간의 공통의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EU-LFS, EU-SILC 등 EU는 공통의 조사를 실시하여, EU 국가 간 주요 특성을 비교한다. 한편 EU 공통의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국적과 시민권 취득여부를 조사하며, 이 항목을 기반으로 EU의 이민자 통계는 국적 기준의 외국인(foreigner)과 내국인(citizen) 통계, 출생지 기준의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와 국내출생(native-born) 인구 통계를 각각 작성한다.

OECD 이민자 통계 역시 OECD 회원국의 다출처 자료원을 통해 이민자 통합지표를 구축하였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의 핵심영역은 ① 가구소득, ② 주택, ③ 건강 지위와 의료접근성, ④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수준, ⑤ 노동시장 성과, ⑥ 직업 특성, ⑦ 시민참여, ⑧ 차별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는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를 해외출생(foreign-born) 인구와 국내출생(native-born) 인구로 나누어 제시한다. 즉 이민자 정의로 국적 위주의 접근이 아닌, 출생국가 여부를 통한 접근방법을 취한다.



한편 OECD 이민자 통합지표에서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전체 외국인 규모로 OECD에서 요구하는 해외출생 인구가 아닌 국적 위주의 외국인 규모이다. 이 밖에 OECD 이민자 통합지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거의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통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국적 중심의 외국인 통계를 분산적으로 실시·작성하고 있으며, 가장 대규모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커버리지가 낮아 자료 활용에 제약이 있다. 외국인 고용조사의 경우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나, 귀화자나 이민 2세대의 노동시장 성과까지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U와 OECD가 회원국의 이민자 통합지표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구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개진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이민자 관련 통계는 대표적으로 ① 우리나라의 센서스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10년 주기의 센서스(Short-Form), ②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상응하는 상시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③ 우리나라의 센서스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세 조사를 통해 작성된다. 센서스 Short-Form은 기초적인 가구 및 인구조사로, 국적별 이민자의 총규모 및 성·연령별 기본특성이 수집된다. 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센서스 Long-Form에 해당하는 ACS에서 조사된다. ACS¹¹⁾에서는 이민자의 민족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해외출생 여부, 시민권 여부, 영주권 여부, 언어 능력, 가정 내 언어적 상황, 본국 도착시점, 거주기간을 조사하며, 최근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CPS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미국의 상시인구조사로, 부모의 foreign-born status를 통해 이민 2세대와 3세대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조사는 매년 11월 투표 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이민자들의 정치참여를 조사한다. 그러나 CPS는 매월 실시되는 표본조사이므로, 일부 소수 민족에 대한 신뢰할만한 표본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EU와는 달리 이민자 관련하여 통합지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이미 전통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이민자에 관한 많은 통계자료와 연구가 누적되어 있다. 또한 이민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통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11) 1960년대부터 실시되었던 조사로 community & housing 조사에서 센서스 long-form 조사로 확대·개편되었다.

제4절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이민자의 국제적인 정의와 기준을 살펴본다. 둘째, 이민자 포괄범위 프레임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한다.

첫째, 이민자의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에 관해 검토하였다. 국제이주통계는 조사가 어려워 많은 부분 행정자료로 작성되고 있으며, 인구통계의 여타의 영역(출생, 사망, 혼인)에 비해 체계적인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국제이주통계는 유량(flow)과 저장(stock) 통계로 구성된다. 유량통계는 이민자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것으로 유입 혹은 유출 이민자의 수로 제시된다. 저장통계는 이민자 총수, 총인구 중 비율로 제시되며, 국적 중심의 외국인 인구 혹은 출생국가 중심의 해외출생 인구로 정의된다. UN, OECD, EU의 국제기구들은 이민자 통계 작성 기준으로 ① 국적(Citizenship), ② 출생국가(Country of birth), ③ 체류기간(Period of arrival in the country)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이주”란 특정 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이전 거주국과 다른 국가에 도착한 외국인이나 돌아온 내국인으로, 국제이주자는 사실상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계획으로 입국한 비상주인으로 정의하고 있다(UN, 2014; OECD, 2012). 이민자 개념의 기준으로는 국적 중심의 ① 외국인 인구(foreign population), 출생국가 중심의 ② 해외출생 인구(foreign-born population)가 있으며, OECD에서는 이민자를 출생 시 외국국적을 갖고, 국외출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민자의 자녀세대는 국외에서 출생한 부모세대의 현지출생 자녀세대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2). OECD의 이민자 정의는 독일 통계청의 이민배경인구를 보다 정교화한 것으로, 이민배경인구란 이주 경험있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국인과 귀화자와 그 자녀세대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둘째, 이민자 포괄범위 프레임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포괄범위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자 포괄범위 프레임 설정을 위해 국적과 출생국가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4개의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외국인과 귀화자 및 자녀세대를 위치시켜 귀화자를 포함한 이민자 포괄범위를 설정해 보았다. 한편 이민자의 실질적인 모집단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와 등록센서스 자료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민자 포괄범위 프레임의 현실적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와 관련하여 EU와 OECD의 지표구성과 주요 분석결과를



검토하였다. EU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는 ① 고용, ② 교육, ③ 사회통합, ④ 적극적인 시민권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활용통계는 EU 노동력 조사(EU-LFS), EU 소득 및 생활 환경 조사(EU-SILC),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등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의 고용률이 전체에 비해 낮으며, 과잉학력 비중은 높고, 학업 저성취자 비중 및 교육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 위험률과 사회적 배제율은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이 높으며, 사회적 이전 후 빈곤위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상태 인지율과 재산소유율은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으며, 재산소유율은 해외출생 인구와 외국인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의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는 배경(맥락) 지표, ① 가구소득, ② 주택, ③ 건강 지위와 의료접근성, ④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 ⑤ 노동시장 성과, ⑥ 직업특성, ⑦ 시민참여, ⑧ 차별로 구성되며, 활용통계는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EU-SILC), Swiss Household Panel(SHP), Household Income and Living Dynamics in Australia(HILDA), Canadian 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SLID), New Zealand Household Economic Survey(HES), US CPS 등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가구소득은 이민가구의 가구소득이 국내출생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출생 가구와 혼합가구의 가구소득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한편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가구는 과밀 혹은 궁핍 거주지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민자 자녀세대는 본국출생 자녀세대에 비해 학업성취도와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해외출생 인구는 본국출생 인구에 비해 임시직 비중이 높으며, 낮은 기능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2. 제언

앞서 이민자 포괄범위에 대한 개략적인 프레임을 설정해보고, EU, OECD의 이민자 통합 지표의 세부지표와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정의와 포괄범위의 설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민자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각 국가나 국제기구별로 권고안에 차이가 있으며, 일관된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민자 정의의 기본 개념은 출생지와 국적 취득여부, 이주국 도착년도(거주기간)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출생지와 국적의 두 개의 큰 기준을 가지고, 이민자 포괄범위를 설정하여 보았다. 특히 최근의 국제 인구이동 동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이주의 형태(외국국적 취득 후 재입국, 동반입국 자녀 등)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이민 2세대까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의 외국인 고용조사에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확대된다는 전제 하에 이민자 통계 작성을 위한 적합한 프레임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설계와 관련하여, 고용조사와 체류실태 대상자를 달리한 이중표본 프레임을 가정하기보다는 체류실태의 포괄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체류실태를 대상으로 표본설계를 하고, 이중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용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고용조사의 시계열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외국인 조사에 귀화자까지 포괄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을 때, 귀화자의 속성은 대부분은 결혼귀화자와 그 자녀세대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 프레임과 관련하여 공통 항목과 순환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프레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공통 항목은 기존의 외국인 고용조사의 시계열을 유지하면서 매년 실시하고, 순환항목은 체류실태와 관련하여 신규로 개발된 항목은 영역별로 순환하여 조사하는 것이다.¹²⁾

셋째, 체류실태조사의 영역 구성과 관련된 제안이다. OECD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는 배경지표와 가구소득, 주택, 건강 등 여덟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사례와 우리 실정을 고려했을 때 제안되는 조사영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류실태 조사의 공통항목을 구성하여 모든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기본특성을 조사한다. 다음 실질적인 조사 영역은 시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시장 성과, 교육(자녀세대), 소득·소비, 차별 및 사회적 관계망, 건강·보건, 문화·여가 정도로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사대상은 영역별로 달리하며 노동시장 성과는 15세 이상, 교육(자녀세대)는 만6세~24세, 소득·소비와 차별, 사회적 관계망, 건강·보건, 문화·여가는 만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응답자의 범위를 통일하는 것이 아닌, 조사영역이나 항목마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달리하며 조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노동시장 성과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귀화자나 이민 2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항목이다. 교육은 이민 2세대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과 소비는 조사가 어려운 영역이나, 이민인구의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 수립 차원에서 필요하며, 더불어 이민자의 본국으로의 송금 역시 SDGs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요한 항목이다.

넷째, 체류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영역을 분할하여, 순환조사하는 형태를 제안한다. 짝수의 조사영역이 설정되면, 영역별 특성과 조사내용, 조사대상, 항목 수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set를 설정하고, 영역별로 순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가령 6개의 이민자 체류 실태 영역이 설정되었다면, 2개 영역씩 3년 주기로 순환하거나, 3개 영역씩 2년 주기로 순환하는 방식이다. 3년 주기로 조사된다면 시의성은 떨어지나 응답부담을 감소할 것이며, 2년 주기로 조사된다면 시의성은 확보되나, 응답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12) 참고로 스위스 센서스는 ① Register, ② Structural, ③ Thematic, ④ Omnibus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③ Thematic survey는 '12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실시되고 있다('12년: 건강, '13년: 가족·세대, '14년: 언어·종교와 문화, '15년: 이동·교통, '16년 교육·훈련, '17년: 건강).



넷째, 조사항목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 선협국의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민자 자녀세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foreign-born status가 필수적이다. 부모의 출생국 지위에서 한사람 이상이 해외출생이면, 그 자녀세대는 이민자 2세대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는 매우 중요하다. 이민 1세대의 특성은 특정 공간에 밀집하여 분포하며, 이민자의 거주지 공간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 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유럽에서는 이민자 차별의식에 관해서 조사하나, 미국은 조사하지 않는다.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별의식에 관한 조사는 이민자 통합에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2세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가정 내 언어적 배경은 교육성취 및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송금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라티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송금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SDGs에서도 송금 관련 세부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조사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김이선 외(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경숙 외(2015), 인구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통계개발원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2014), 2014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유경준·이규용(2009),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윤인진(2013), 동북아시아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한울

이규용 외(2011),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기선 외(2011),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정병호·송도영 외(2012), 한국의 다문화 공간, 글로벌다문화총서

OECD(2012), Sett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EU(2011),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A Pilot Study

UK Statistics(2009), Migration Statistics: the Way Ahead?